

앵커 전환 첫해, ‘산학연협력 엑스포’... ‘초광역’ 닷 올려

19회째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 교육부·경기도 주최 362개 기관 참여
‘5극3특’에 초점, 3개 전시관 5개로 확대... 대학·기업 협력관 첫선
최고진 장관 “산업 성장에 인재가 필수... 인재 양성 거점은 대학”

지난해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올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이하 앵커)’로 간판을 바꿔 단 뒤 처음으로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지역 전략산업과 맞춤형 인재’, ‘초광역’ 등을 전면에 걸고 막을 올렸다.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지난날 30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막했다. ‘지역과 인재를 잇는 산학연, 미래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2일까지 사흘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다. 교육부·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며,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 362개 기관이 부스를 운영했다.

엑스포가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동안 개최 방식은 꾸준히 바뀌어 왔다. 지난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사는 라이즈 본격 시행 첫해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앵커 체계에서 광역지자체가 대학 지원의 실질적 주체로 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공동 주최 구조에 담긴 것으로 풀린다. 실제 교육부는 이번 경기도 공동 개최에 대해 ‘지역 산학연협력의 주체인 지자체의 협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시 구성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초광역에 초점을 두고 짜인 모습이다. 앵커 체계의 골자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하는 구조를 권역 단위로 만드는 것으로, 5극3특관에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지역 현안 해결 등 4대 성과목표별로 우수사례를 집약해 구성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이날 메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은 앵커 관련 기념영상 시청과 내빈 환영사·축사를 거쳐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시상식 등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와 산학협력 유공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등 총 131점이 수여됐다.

최고진 교육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역과 인재를 잇는 산학연, 미래성장의 새로운 엔진’이라는 올해의 주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산학연 협력은 대학과 기업이 개별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교육과 연구, 인재 양성, 산업 전반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핵심 성장 동력이 됐다”라며 “지역이 성장하려면 산업



1일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대행사 중 하나로 ‘2026 한중일 산학연협력 국제포럼’이 열렸다. 김영식 기자

이 필요하고,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재가 필수적이며, 그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거점이 바로 대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기업, 지방 정부가 하나가 돼 움직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완성될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발맞춰 올해 교육부는 산학연 협력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해 앵커체계를 새롭게 개편했으며,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이 한층 더 긴밀히 연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올해는 5극3특이라는 초광역 권역 중심의 균형 발전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산학연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오늘 한자리에 모인 다양한 전시관과 많은 성과들, 그리고 사흘간 펼쳐진 다채로운 부대행사는 이러한 혁신의 결과물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키워낸 인재가 지역에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주행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AI와 국제 관계의 변화 속에서 엄청난 변화

를 맞고 있다. 이를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학, 나아가 정부까지 같이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대한 핵심은 결국 ‘사람’이 아닐까 한다. 결국 교육과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경기도에서도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전국 제조업 산업의 약 32%가 자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그만큼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과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와 연구 기반도 탄탄하다”고 말했다.

주 부지사는 또 “산업 기반은 더욱 두텁다. 전국 반도체 기업의 51%가 경기도에 모여 있으며, 경기도는 이런 기반을 활용해 도내의 산학연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경기 앵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coolys@unn.net
4면에 계속

앵커 선도대학을 가다 (전북 앵커/ANCHOR) 특집

8~15면

수시 접수 번호 보면 경쟁률 알 수 있다... 143개 대학서 확인

2026 국감 미리보기

김희정 위원장 대교협 통해 확인
인서울 30곳·국립대 25곳 포함
경쟁률 비공개 조치 실효성 우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원서를 접수한 뒤 발급된 접수번호를 이용해 특정 대학·학과에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공개가 중단된 이후에도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수험생 간 정보 격차와 대입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일반대학 197개교 가운데 조사에 회신한 165개교 중 143개교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 인원을 확인하거나 경쟁률을 유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학은 32개교다.

접수번호의 일정 부분에 해당 시점까지의 접수 순번이 표시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원서 접수번호가 ‘A20260120’이라면 끝자리 ‘120’이 해당 시점까지의 실제 접수인원을 의미하는 방식이다. 모집인원이 20명인 B 대학 학과에서 ‘B1010120’이라는 접수번호가 발급됐다면 해당 전형에 120번째로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점의 경쟁률을 6대 1로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학에는 연세대·고려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 30곳이 포함됐으며, 부산대·인천대·충북대·제주대 등 국립대 25곳도 해당했다.

특히 지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구제 신청을 받은 56개 대학 가운데 서울과학기술대·경희대·전남대 등 42개 대학에서도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 인

원과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학들은 원서접수 막판 지원자 출력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 2~3시간 전부터 경쟁률 공개를 중단하고 있다. 경쟁률을 미리 확인한 수험생이 지원자가 적은 모집단위로 이동하는 등 막판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3자 명의로 목표 모집단위에 원서를 접수한 뒤 발급된 접수번호를 이용해 지원 규모를 확인하고, 이후 실제 지원할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경쟁률 비공개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입전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규정하는 고등교육법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지적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수험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고, 그 마지막 선택이 바로 대입 원서 한 장”이라며 “하지만 그 간절한 선택이 대입 행정의 미숙과 교육부의 관리 부재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이 같은 구조를 지금까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번 대교협 조사를 통해 인터넷에 떠돌던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이를 개별 대학의 운영 문제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시모집 전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지연 기자 lly12@unn.net
관련기사 2면

알립니다

대학 발전의 숨은 주역, ‘큰’ 일꾼 추천받습니다

제18회 한국대학신문 대학직원 대상 추천... 11월 23일 접수 마감

한국대학신문이 제정해 시상하는 ‘대학직원 대상’이 올해로 18회를 맞았습니다. 대학직원 대상은 대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조성하고 창의적 업무 혁신을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온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시상제입니다. 일반대·전문대·사이버대로 구분해 시상하는 대학직원 대상의 올해 주인공을 찾기 위해 대학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랍니다.

- 추천 대상 :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에 재직 중인 직원
- 접수 방법 : 이메일 / uhr@unn.net (다운로드 서류작성 스킴 후 압축파일 발송)
우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타워2차 14층 한국대학신문 직원대상 사무국 담당자 앞 (2026년 11월 23일(월) 18:00시 마감(소인 유효))
- 문의 : 02-2223-5050(※ 상세 내용은 본지 홈페이지(news.unn.net) 참조 바랍니다.)
- 후원기관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가천대학교

AI 중심대학 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년간 240억원 지원

AI

8

AX

교육·연구·창업 연결

AI·AX 교육 혁신

이길여 총장

“수시 먹통 사태 책임 따진다”... 국회 교육위,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23일까지 17일간 진행... 교육부·국교위 등 교육 관련 67개 기관 감사 대상 제출 요구 자료만 1만 4849건 달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집중 검토 증인·참고인 등 대규모 출석 명단 확정... 여야 “이번 사태 흐지부지돼선 안 돼”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회를 비롯해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교육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원인과 관리·감독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439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감 대상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5개 기관과 교육위가 선정한 기관을 포함해 총 67개다. 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23일까지로 확정됐다. 세부 일정은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국감 첫날인 10월 7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정심사위원회 △국립국립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 8개 국가기관을 국회에서 감사한다.

12일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

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 3곳을, 16일에는 서울대·인천대·한국방송통신대·한국교원대·서울과학기술대·서울교육대·한국체육대·한국국립대·경인교육대와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등 11개 기관을 감사한다.

20일과 21일에는 지방 교육청과 대학에 대한 현지 감사가 진행된다. 20일 감사 1반은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 등 6개 기관을, 감사 2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교육청 등 7개 기관을 감사한다.

21일에는 감사 1반이 부산대에서 부산대·경상국립대·경북대·강원대·부경대·한국해양대·부산교육대·창원대·진주교육대 등 9개 기관을, 감사 2반은 전남대에서 전남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한국교통대·한밭대·공주교육대·청주교육대 등 10개 기관



지난달 29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현장.

임지연 기자

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23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현재까지 교육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총 1만 4849건이다. 피감기관 증인은 공적인 직위를 포함해 67개 기관에서 총 245명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은 기관장을 포함해 국장급 이상, 그 밖의 기관은 기관장과 적정 수의 임원 또는 간부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일반 증인은 19명, 참고인은 4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감 일정 의결 이후 최근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인선 의원은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과정에서 초유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대학 입시는 한 번의 장애로도 수험생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20년 동안 크고 작은 에러가 있어 왔지만 1시간 연장 접수는 초유의 사태다. 연장 접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시스템 장애 원인과 사전 대비 여부, 구제 기준의 공정성,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위원 역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와 부하 테스트, 예비 서버 이중화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대행사에 요청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전체적인 책임은 결국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 대행사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감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원서접수 과정에서 이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감 기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별도의 청문회 등을 개최하기보다는 국감 기간에 해당 사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결코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현장 조사 결과 등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상임위 차원의 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감 기간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응시번호와 수험번호를 통해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자기가 아닌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로그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한 만큼, 수험생들이 원서접수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기자 lly12@unn.net

교육부, 표준 공통원서 시스템 예산 34% 삭감... 사전 검증도 없었다

박정훈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 유웨이 OS·IDC 변경 사전 인지 못해 “국가 기간망인데 민간 핑계만” 질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예산이 전년보다 34% 삭감됐으며, 원서접수 시스템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사전 검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 사전·사후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2025년 9억 7400만 원에서 2026년 6억 3900만 원으로 34%(3억 3500만 원) 삭감됐다.

유웨이어플라이의 OS·인프라 변경을 교육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유웨이어플라이는 수시 원서접수 전인 6월과 7월 OS를 업데이트하고 IDC(데이터센터)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긴급 간담회에서 유웨이 관계자가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임지연 기자

터)를 이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교협과 유웨이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 못했다. 민간 대행사 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최근 3년간 대입 원서접수와 관련한 교육부 주관 감사 및 실태 점검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예대용 매뉴얼은 10여 년간 단순 행정 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장예대용 매뉴얼 개정 이력에 따르면 2016년 ‘표준공통원서 장예대용 매뉴얼’ 도입 이후 ‘운영 일정 및 담당자 최신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삭제’

등 단순 행정 사항을 반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훈 의원은 “사고 직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시 마감시간 연장(장예시간×1.2배)을 결정·발표해놓고, 정작 사전 점검과 책임 앞에서는 ‘민간 계약이라 한계가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은 단순 사기업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 핵심 기간망이다. 사전·사후 검증 전무, 예산 대폭 삭감 등 원서 접수 컨트롤타워인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서울대 신입생 수도권 쏠림 심화... 강남구 한 곳이 부산의 2.4배 달해

한병도 의원,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 2026학년도 수도권 고교 출신 68.2% 6년새 4.8%p 증가, 비수도권은 41명 ↓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고교 출신 비중이 최근 6년 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 한 곳에서 배출한 서울대 신입생이 부산 전체 출신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생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 최종등록자 3673명 가운데 수도권 고교 출신은 2504명(68.2%)으로 집계됐다. 검정고시 및 외국 소재 고교 출신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출신 비중은 2021학년도 63.4%에서 2026학년도 68.2%로 4.8%포인트 높아졌다. 서울대 최종등록자는 2021학년도 3303명에서 2026학년도 3673명으로 37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출신은 2093명에서 2504명으로 411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을 웃돌았다. 반면 비수도권 출신은 1210명에서 1169명으로 41명 줄었고, 비중은 36.6%에서 31.8%로 낮아졌다.

수도권 출신 증가를 이끈 것은 경기지역이었다. 경기지역 고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2021학년도 738명에서 2026학년도 1014명으로 276명(37.4%) 늘었다. 전체 서울대 신입생 증가분 370명의 74.6%가 경기 출신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경기 출신이 1000명을 넘어선 것도 조사 기간 중 처음이다. 서울 출신 역시 같은 기간 1169명에서 1337명으로 168명(14.4%) 증가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026학년도 서울 강남구 소재 고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295명으로 조사 기간 6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1학년도 195명과 비교하면 51.3% 증가한 수치로, 전체 서울대 신입생의 8.0%를 차지했다.

강남구 출신 295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대전(149명)의 약 2배였으며, 부산(123명)의 2.4배에 해당했다. 광주·전북·전남을 합친 호남권 출신 171명보다도 1.7배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 출신은 486명(13.2%)으로 6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 출신 493명과 7명 차이다.

2021학년도에는 영남권 출신이 547명으로 강남3구 출신 362명보다 185명 많았지만, 2026학년도에는 두 지역 간 격차가 7명까지 줄었다. 강남3구 출신은 호남권 출신 171명의 2.8배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호남권 출신은 2021학년도 210명에서 2026학년도 171명으로 39명(18.6%) 감소했다. 전북 출신은 69명에서 42명으로 27명(39.1%) 줄어 조사 기간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도 57명에서 35명으로 22명(38.6%) 감소했다. 영남권 출신 역시 547명에서 493명으로 54명(9.9%) 줄었다. 부산은 123명, 대구는 131명으로 각각 6년 중 가장 적은 규모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충청권과 제주만 증가했다. 충청권 출신은 354명에서 407명으로 늘었고, 제주는 39명에서 4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남·호남·강원권은 모두 감소했다.

서울 내부의 격차도 두드러졌다. 강남구 출신이 295명인 반면 중랑구 출신은 5명에 그쳐 두 지역 간 차이가 59배에 달했다. 영등포·용산·성동·종로구 등 4개 구는 서울대 신입생 출신이 10명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 출신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3구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다.

한병도 의원은 “서울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학법인이므로 지역 간 교육 기회 균형을 이룰 책무가 있다”며 “지역균형전형 등 기존 선발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전형별·지역별로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수도권으로 몰리는 의료진... 지역 국립대병원 전문의, 수도권 빅5 절반 수준

박용갑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수도권 10병상당 전문의 평균 4.31명 우수인력 유입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의료인력이 유입,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수도권 빅5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평균 4.31명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4.72명으로 가

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 4.5명, 서울성모병원 4.35명, 서울아산병원 4.19명, 세브란스병원 3.8명 순이었다.

반면 지역 국립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평균 2.37명에 그쳤다. 경상국립대병원이 2.0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북대병원 2.13명, 충남대병원 2.18명, 전남대병원 2.23명, 충북대병원 2.33명 순이었다.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병상수와 전문의 수를 모두 합쳐도 수도권 빅5보다 적었다.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병상수는 총 8123개로 빅5의 9330개보다 적었으며, 전문의 수는 총 1904명으로 빅5 3985명의 47.8% 수준이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서도 지역 의료인력 확보의 한계가 나타났다. 시행 1년을 맞은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강원이 유일했다. 근무 중인 89명의 의사 가운데 지방의료원에 근무

하는 인원은 2명(2.2%)에 그쳤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후주가 농촌 일반의에게 이주비·주거비·가족지원·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참여 인원 규모가 제한적이다. 또한 월 400만원 수준의 수당과 지자체별 편차가 큰 정주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연계된 ‘경력 인센티브’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지가 되기 위해선 우수 의료인력이 유입,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지방에서 믿고 갈 수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기자

한국 대학 국제화에 ‘발목’… 세계 200위권 2년째 6개교에 머물러

‘2027 THE 세계대학평가’ … 국내 대학 전년비 3개교 늘어난 44개교 순위에
서울대 56위로 국내 1위 유지… 성균관대 19계단·고려대 28계단 상승하며 약진
산학협력은 100점인데 국제화는 55점… 아시아 부상 이끈 ‘정부 재정’ 주목해야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7 THE 세계대학평가’에는 118개국 2297개 대학이 순위에 올랐다.(평가 참여 기관 3146곳) 세계 1위는 영국 옥스퍼드대로 역대 최장인 11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국내 대학은 전년보다 3개교 늘어난 44개교가 순위에 올랐으며 서울대가 세계 56위로 국내 1위를 지켰다. 성균관대는 전년 87위에서 68위로 19계단 올라 5년 만에 연세대를 앞서는 국내 3위에 올랐다. 국내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세계 200위 안에 든 대학은 2년째 6개교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중국은 200위권 이내 대학을 13개교에서 17개교로 늘렸다.

본지가 2026·2027 THE 세계대학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순위와 점수가 함께 올랐다. 서울대는 공동 58위에서 56위로 2계단, KAIST는 공동 70위에서 64위로 6계단 상승했다. 연세대로 86위에서 80위로 6계단 올랐다.

두드러진 곳은 성균관대와 고려대다. 성균관대는 19계단 뛰어 국내 3위가 됐다. 2025년판에서는 연세대와 공동 102위로 같았고, 2026년판에서는 연세대(86위)에 1계단 뒤졌다. 종합점수는 68.3점에서 72.7점으로 4.4점 올라 세계 200위권 국내 대학 중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고려대는 공동 156위에서 128위로 28계단 올라 순위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내 상위 6개교는 모두 종합점수가 올

랐다. 성균관대 4.4점, 고려대 3.0점, KAIST 2.3점, 연세대 2.1점, 서울대 1.5점 순으로 상승했다. 포항공대는 0.4점 오르며 공동 141위에서 공동 143위로 2계단 내려갔다.

개별 대학의 약진과 달리 국내 대학의 상위권 저변은 넓어지지 않았다. 100위 이내 대학은 서울대·KAIST·성균관대·연세대 4개교, 200위 이내 대학은 고려대·포항공대를 더한 6개교로 전년과 같다. 300위 이내 대학도 10개교로 변동이 없다. 500위 이내 대학은 14개교에서 15개교 1000위 이내 대학은 26개교에서 27개교로 각각 1개교 늘었다.

같은 기간 아시아 대학들은 상위권을 넓혔다. 200위 이내 중국 대학은 2024년판부터 3년째 13개교에 머물렀지만 올해 17개교로 4개교 증가했으며 이 중 71%가 순위를 올렸다. 말레이시아도 처음으로 200위 이내에 대학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의 200위 이내 대학 수 격차는 전년 7개교에서 11개교로 벌어졌다.

THE는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아시아 대학들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1위 칭화대는 3년 연속 12위에 머물다 올해 11위로 올라 스위스 ETH 취리히(12위)를 앞질렀다. 아시아 최고 대학이 유럽(영국 제외) 최고 대학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대(13위)와 싱가포르국립대(15위)까지 아시아 대학 3개교가 처음으로 15위 안에 들었다. 반면 미국의 200위 이내 대학은 55개교에서 53개교로, 영국은 26개교에서 25개교로

2027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상위 10개교					(단위: 위, 점)
국내	대학	2026	2027	변동	종합점수(2027)
1	서울대	공동 58	56	▲2	75.6
2	KAIST	공동 70	64	▲6	73.6
3	성균관대	87	68	▲19	72.7
4	연세대	86	80	▲6	70.6
5	고려대	공동 156	128	▲28	64.4
6	포항공대	공동 141	공동 143	▼2	62.7
7	경희대	251~300	공동 237	-	57.6
8	세종대	251~300	공동 281	-	55.8
8	UNIST	201~250	공동 281	▼	55.8
10	한양대	251~300	공동 296	-	55.1

국내 상위 6개교 영역별 점수					(단위: 점)
대학	교육	연구환경	연구품질	산학협력	국제화
서울대	75.2	77.8	78.2	100.0	45.0
KAIST	67.1	70.2	86.4	100.0	47.4
성균관대	65.0	63.3	86.6	99.8	68.7
연세대	61.2	60.4	89.1	100.0	57.6
고려대	53.5	52.6	79.0	100.0	75.9
포항공대	58.5	50.7	79.2	100.0	39.1

자료: 2027 THE 세계대학평가 (한국대학신문 재구성)

줄었다.

100위 이내 아시아 대학 21개교 가운데 중국이 8개교 홍콩이 5개교다. 한국은 4개교로 뒤를 이었고 싱가포르와 일본은 각 2개교다. 일본은 도쿄대(27위)와 교토대(공동 62위)가 나란히 1계단씩 떨어졌다.

평가영역별로 보면 경쟁과 약점이 뚜렷하다. THE는 교육, 연구환경, 연구품질, 산학협력, 국제화의 5개 영역 17개 세부지표로 대학을 평가한다.

국내 상위 6개교의 산학협력 점수는 평균 99.97점이다. 서울대·KAIST·연세대·고려대·

포항공대가 100.0점 만점을 받았고 성균관대는 99.8점이었다. 연구품질도 평균 83.1점으로 높았다.

반면 국제화 점수는 평균 55.6점으로 5개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서울대 45.0점, KAIST 47.4점, 포항공대 39.1점에 그쳤다. 옥스퍼드대(95.8점)와 비교하면 서울대는 50.8점 뒤진다. 같은 상위권에서도 고려대(75.9점)와 성균관대(68.7점)는 국제화 점수가 높았다.

THE 분석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확인된다. THE에 따르면 미국·영국은 외국인 교원·학생,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화 지표에서 크게

앞서는 반면 중국·싱가포르·홍콩은 산학협력, 특히 산업 수입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 산학협력은 만점에 가깝고 국제화가 약한 한국 상위권 대학도 이 아시아형 구조에 가깝다.

국제화 지표를 끌어올린 대학은 순위도 올랐다. THE에 따르면 칭화대의 상승은 주로 외국인 교원과 학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말레이시아도 외국인 학생·교원 등 국제화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200위 이내에 진입했다.

해외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부상을 구조적 변화로 봤다. THE 보도에 따르면 해미시 코츠 호주국립대 명예교수(칭화대 중신교수)는 지난 20년간 아시아 학생들이 영미권 5개국으로 대거 유학을 떠났던 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시아가 이제 세계 최대의 고등교육 무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상승의 동력으로는 정부 재정이 주목됐다. 사이먼 마킨슨 영국 브리스톨대 교수는 연구 성과는 공공 재정이 뒷받침될 때만 유지될 수 있고, 부상하는 고등교육 체제는 모두 해마다 늘어나는 정부 재정이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재정을 소수 대학에 집중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광타오 일본 히로시마대 고등교육연구소 교수는 중국 대학의 국제공동연구 지표 하락을 연구력 약화가 아닌 국제 연구 네트워크의 재편으로 해석하면서도 일본의 사례에는 경고를 보냈다. 일본 정부의 우수 대학 육성 투자에도 도쿄대와 교토대가 나란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 대학에 재정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인규 기자 pig0920@unn.net

“모든 거점국립대 교류·발전하는 ‘서울대 1개’ 연합 형태로 나아가야”

“결국 개별 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닌,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가 함께 인프라 등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연합대학 형태의 ‘서울대 1개 만들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일 임정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 상임회장(서울대교수회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만 선별 지정하면서 이른바 ‘줄 세우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점국립대 간 경쟁 대신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공유하는 연합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 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은 대학이 가진 고유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억제했고, 최종 선정 이후 정부가 내놓은 향후 계획 등은 오히려 대학가 등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지역대학을 키우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궁극적 목적·방향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목 상임회장은 “마라톤에 참가하려면 먼저 준비운동을 해야 하듯, 국립대의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결국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 3개교 선정에 그친 것”이라며 “각 대학이 고유의 특성화를 발굴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을 추가 지원·선정하겠다는 등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신뢰성도 하락했다”며 “조심으로 돌아가 ‘지역대학 육성화’에 매진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잇는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연합체제의 추진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정목 상임회장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재정 효율성 극대화, 공통 기자재 활용, 교수·학생 등 인력의 자유로운 교류, 비슷한 수준의 대학 간 공동취약제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국립대를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임정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 상임회장(서울대교수회 회장)이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거점국립대가 시설 등을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합대학 형태의 ‘서울대 1개 만들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연서 기자

임정목 거국련 상임회장 정책 제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유 연합 강조 자율성 보장 ‘국립대학법’ 필요 언급

각 대학이 자체적 역량을 갖추려면 충분한 학생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거점국립대 간 연구 장비와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려면,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 처럼 ‘오픈니스(Openness·개방성)’ 기반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연구 역량은 이미 서울대 수준에 육박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립대가 초·중등교육과 연계해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자질을 발굴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심사·평가 기준과 과정 역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를 진행했을 뿐, 구두 발표나 질의응답 등이 전무했고 선정 기준 등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임 상임회장은 “정부에 심사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협의화·단체 등 차원의 실질적·행정적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하면 그만이고,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승소 확률도 불확실한데 시간·노력 등이 투자되며 언론 보도나 성명서 발표 역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국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거국련·국가중심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 등 교수 3단체가 정부에 촉구한 자율성 보장 중심의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이 독립된 법률로서 지위를 확립해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안정적·지속적 예산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1년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전환된 서울대의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정부가 예산을 총액(블록) 형태로 교부하면서도 항목별 세부 규제를 유지하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등 외부 기관의 엄격한 감사를 받게 된 점 △수백 쪽에 달하는 운영성과평가보고서 작성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점 △교원들의 공무원 신분 변동 과정에서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선택권이 부여됐으나 까다로운 자격 요건 등으로 인해 대다수가 사학연금으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기존보다 안정성이 저하된 점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정목 상임회장은 향후 올바른 법인 제정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재정 독립성 확보와 규제 완화, 신분 보장을 꼽았다. 그는 “진정한 대학 법인화를 달성하려면 재정 자율성을 담보하는 사업 간 장벽을 없애 통합 형태의 재정 지원 도입이 시급하며, 수익사업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교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유지가 핵심 조건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연서 기자 lys81@unn.net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지출·고용률 ‘OECD 평균 이하’

2026 OECD 교육지표 결과 발표
초·중등 정부재원 공교육비 평균 이상
국내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1위’

2023년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교육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 등 총 5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8256달러(약 2500만 원)로 2022년 1만 9805달러(약 2700만 원) 대비 7.8% 감소했다.

고등교육은 1만 6479달러(약 2230만 원)로 2022년 1만 4695달러(약 2000만 원) 대비 12.1%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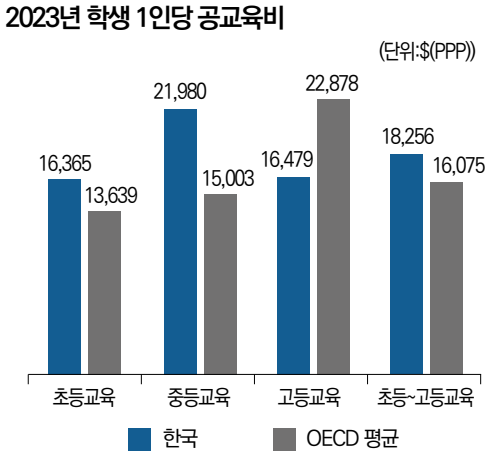
초·중등교육은 초등 1만 6365달러(약 2220만 원), 중등 2만 1980달러(약 2000만 원)로 각각 2022년보다 17.1%, 13.0% 감소했지만,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했다.

2023년 기준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2022년 5.6%보다 0.7%포인트 감소했으며,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전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9%다. 2022년 4.7%보다 0.8%포인트 감소했으며, OECD 평균과 같았다.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에서 초·중등교육 단계는 3.2%로 2022년 4.0% 대비 0.8%포인트 감소했지만,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는 0.7%로 2022년 0.6% 대비 0.1%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했다. 2025년 기준 국내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2%로 OECD 평균 42.6%보다 높다. 만 25세부터 34



세까지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모두 낮다. 2025년 기준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6.5%로 2024년 76.1%보다 0.4%포인트 증가했지만, OECD 평균 79.1%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고졸자의 고용률은 72.8%, 일반대 졸업자는 80.1%, 전문대 졸업자는 78.1%로 각각 OECD 평균 77.5%, 83.4%, 86.0%보다 낮았다.

초·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을 상회했다. 2024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11.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이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에서 휴직·파견교사를 포함했던 것과 달리, 2026년 교육지표부터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교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휴직·파견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년도 값과 비교시 지표 산출 방식이 변화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ECD는 매년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해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도 탑재된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주지영 기자 marigold@unn.net

초광역 인재양성 본격화... 공유대학·성장엔진 사업 중심 협력체계 논의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한국연구재단 ‘2026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 공동 개최
5급3특 공유대학 9곳·초광역 성장엔진 6개 협의체 참석... 권역별 주관 체계 확정
협의체별 논의 과정 통해 지자체·대학·기업 역할 구체화 등 초광역 협력 방안 모색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가 5급3특 기반 초광역 권역을 축으로 재편된 가운데, 시·도 경계를 가로지르는 인재양성 사업을 실제 운영할 대학과 지자체가 역할 분담 논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관련 협의체가 모여 권역별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성과를 남겼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6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는 같은 날 개막한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에 연계한 행사로, 부대행사 중 가장 먼저 열렸다.

지난해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는 대학 지원 권한을 광역 시·도로 넘긴 체계였다. 앵커는 여기에 ‘권역’이라는 층위를 하나 더 얹었다. 교육부는 올해 RISE의 재구조화 방안으로 앵커 개편을 추진하면서 대학 지원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급3특과 맞물리게 했다.

5급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이번 초광역 포럼은 ‘초광역 산업경제권 중심의 고등교육 혁신’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함에 따라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방안과 범정부 균형발전 전략을 동일한 ‘권역’ 단위에서 논의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는 평가다.

이날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 자리에서 장동석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그 핵심 기반이 바로 앵커 사업”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공유대학을 통해 인재를 잘 양성하고, 또 지역 성장엔진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써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 지방시대위 위원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드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잘 듣고 잘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바로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최종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석수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조직의 정책이나 전략, 목표 등을 보면, 앵커 사업도 그렇듯 목표 수립부터 시작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치하고 실행한다”며 “이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인데, 이 목표는 아마도 첫째, 국가 단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둘째, 지역 단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셋째, 개별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와 대학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큰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새롭게 얼라인먼트(정렬하는 과정)”이라며 “서로 간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사업으로, 또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문 한국연구재단 중앙RISE센터장은 이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라이즈(RISE) 체계 출범 이후 지역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라이즈가 앵커로 전환되면서 지역 단위 혁신을 넘어 5급3특, 즉 초광역 협력 기반의 새로운 지역혁신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5급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 지역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5급3특 공유대학 사업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메인 무대에서 ‘2026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렸다.

김영식 기자

성 사업은 각 권역의 특성과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초광역 차원의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포럼은 5급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이 현장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권역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협의체가 가진 고민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초광역 협력은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서로 다른 지역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갈 때 더 큰 지역 혁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각 권역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초광역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민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사무관은 “초광역 협업 과제의 핵심은 소통과 협업”이라며 “특히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모델 6개도 같은 맥락이다.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이, 한 시·도가 아니라 여러 시·도가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무엇

보다 네트워크와 협업,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자리도 마련된 것”이라며 “시·도 간 행정 경계를 넘어 대학 간 벽을 넘어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간 교류, 교육과정의 공유를 넘어 권역별 공유대학 연합체 명의의 학위 수여 등 연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중장기 발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예를 들어 런던 대학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 주요 대학 간 연합체로 런던 대학을 구성해 런던 대학의 명의로 졸업장을 수여하고, 참여대학 학생에게 주요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연합 체계 고도화 논의가 공유대학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해지면, 그 부분에 있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5급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은 각각 협의체 구성을 달리 하고 있다. 우선 5급3특 공유대학

은 9개 거점국립대가 주관대학을 맡았다.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은 경상국립대·부산대, 서남권은 전남대, 대경권은 경북대, 중부권은 충남대·충북대다. 강원·전북·제주에서는 강원대·전북대·제주대가 주관한다.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의 경우 경남·경북·세종·전남광주통합특활시·전북·충남 등 6개 광역지자체가 주관한다. 주관대학 6곳 가운데 국립금오공대와 국립목포대를 뺀 경남대·고려대(세종)·우석대·단국대 4곳이 사립대다.

이번 포럼에선 초광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초광역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초광역 협력 논의는 포럼을 시작으로 엑스포 기간 내내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 전략 세미나가 동시에 열렸다. 특히 마지막 날인 2일에는 지역 정주를 위한 계약학과 활성화 세미나가 열렸다.

김영식 기자 coolys@unn.net

대학-기업 협력관, 현장 교육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사례 공유

2026 산학연협력 EXPO 1면에서 계속

홍원화 이사장 “초광역 협력 중요
지산학 하나 돼 혁신·성장 이뤄야”
한중일 포럼 등 부대행사도 진행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올해 엑스포의 주제는 ‘지역과 인재를 잇는 산학연, 미래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산학연 협력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과 지역이 있다”며 “지역의 인재가 대학에서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펼치며, 다시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산학연 협력의 미래”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라이즈(RISE) 체계의 본격적인 출범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ANCHOR)로의 전환과 함께 지역혁신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혀가고 있다”며 “특히 5급3특을 중심으로 지역 간 강점을 연결하고, 인재와 산업 기술을 함께 활용하는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학과 기업, 연구 기관과 지역은 각자의 영역을 넘어 서로 힘을 모아 더 큰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또 “이번 엑스포에서는 성장엔진관과 5급3특관을 통해 대학과 기업, 연구 기관, 지역이 함께 만들어 온 산학 협력의 다양한 성과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며 “특히 AI와 로봇,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성과는 물론,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산학 일체형 협력 모델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해는 전국 362개 기관이 함께 미래 세대와 기업,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면서 “이번 엑스포가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동력을 키워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기술과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람과 기술이 만나고 대학과 기업이 만나며 연구와 현장이 만나는 자리가 오늘의 엑스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는 새로운 지식과 인재가 있고, 기업에는 현장의 문제와 기술이 있으며, 연구 기관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들이 서로 연결될 때 새로운 산업이 되고, 산업이 일자리가 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큰 변화에도 직면해 있다”며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다. 서로의 경계를 넘어 연결하고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학과 기업, 연구 기관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산업 인재



지난달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부스 모습.

김영식 기자

양성과 기술 협력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경기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그 연결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성장엔진관, 5급3특관, 정책홍보관, 범부처협력관, 대학-기업관 등 5개 관으로 나뉜다. 지난해 신산업관·지역성장관·정책홍보관 3개에서 올해 확대됐다.

먼저 ‘성장엔진관’에서는 창업과 기술사업화 성과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국립부경대는 ‘학생 창업유망팀 300+’에 선정된 팀이 개발한 공익식 부품을 내놨다. 판자와 봉대를 감던 기존 응급 부목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튜브 형으로 바뀌어 응급처치에 걸리는 시간을 3분에서 10초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부산대는 앵커 초광역 기술사업화 과제로 만든 치매 환자용 ‘스마트 슈즈’를 전시했다. 신발 센서가 압력 분포를 실시간으로 읽어 넘어짐이나 이상 보행, 안심구역 이탈을 감지하면 보호자에게 곧바로 알린다.

‘5급3특관’에서는 경민대가 경기 북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VR 사격 시뮬레이터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를 시연했다. 실탄 사격 훈련에 드는 비용과 공간, 안전 부담을 가상 현실로 대체한 장비다. 물리 기반 탄도 계산을 적용했고, 사격 결과를 정량 데이터로 자동 평가한다.

올해 처음 마련된 ‘대학-기업관’은 현장 교육에서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이어진 협력 사례를 모았다. 인천대는 ㈜엘라인, ㈜유일로보틱스, 현대엔지비(주) 등과 함께 운영한 AI·로봇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로보컵 2026 1인전’ 산업자동화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로봇도 직접 선보였다. 블록 여러 개를 슬라이드 구조에 차례로 쌓은 뒤 한 번에 옮겨 조립하는 피지컬 AI 기술이 적용됐다.

‘정책홍보관’에는 교육부의 앵커·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정책과 경기도의 앵커 지

역혁신 플랫폼이 나란히 자리했다. ‘범부처협력관’에서는 산업통상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진하는 지역 연계 산학연협력 재정지원사업을 한곳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전시장 밖 세미나실에서는 사흘 내내 포럼과 경진대회 등이 이어졌다. 첫날 오후에는 메인무대의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을 시작으로 여러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 및 발전총회,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3개교의 추진 전략 세미나가 이어지고, 학생 창업유망팀 300+ 도약과정 데모데이도 같은 시간대 진행됐다.

둘째 날인 1일에는 오전 한중일 산학연협력 국제포럼이 열렸다. 오후 2시 30분 메인 무대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공개 면접으로 우수 학생을 뽑는 ‘앵커루트+(ANCHOR-Recruit+)’가 이어졌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다루는 제2회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 포럼과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혁신 성과 콜로кви움도 같은 날 열렸다. K팝 데모곡에 직접 가사를 붙이는 ‘K-MEGA LYRICS 챌린지’도 마련됐다.

마지막 날에는 ‘경기 GAIA 포럼’이 ‘지역 일자리와 대학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고, 지역 정주를 위한 계약학과 활성화 세미나와 전 문대학벤처사업단협의회 사업단장 포럼이 뒤를 이었다. 전시장에서는 행사 기간 산학협력,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AI 활용 지역문제 해결 경진대회, 지역혁신 도전·실패사례 경진대회 수상작이 공개됐다.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진로체험은 학교급별로 초·중·고·대학·상급자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사립대 정리 대상 아냐… 설립유형 아닌 역할 보고 재정 투입해야”

대담=최용섭 주필 겸 편집인

“‘국립’ ‘사립’이라는 대학의 설립유형보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과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제대 총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학을 지원하는 건, 학생 측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대학 설립유형에 따라 재정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의 실제 역할과 기능, 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부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3개교를 발표했다. 여기에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을 운영해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 지원에 집중된 탓에 ‘사립대 소외론’이 불거졌다. 이에 사총협도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전민현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이 그동안 지역 사립대가 만들어온 각 대학의 특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이 운영되는 거점국립대가 주요 대도시에는 없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전 회장은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 인구소멸지역 대학이 살아야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지역 인지도 배출 할 수 있다”라며 “항후 재원이 모일 때마다 지원 지역을 넓혀가는 형태로 만들어야 본래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사립대 지원도 확대되고 있지만, 국립대와외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립대에 대한 투자는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간 교육자산을 활용해 국가 인재양성의 투자효율을 더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3월 사총협 회장 취임 후 그동안 중점적으로 다룬 사립대 현안은 무엇인가.

“자율과 책임, 공정과 혁신”을 원칙으로 사립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그동안 사립대가 국가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의 주체로 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정책환경과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사립대를 둘러싼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사립대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대학 운영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일이다. 그간 일부 사례로 인해 폄하되었던 사립대의 국가·사회 기여도를 정확한 근거와 성과로 설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사립대 스스로 대학 운영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혁신과 자정 노력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IT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전환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사총협이 주최한 유학생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유학생을 단순한 충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미래인재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AI 전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동안 사립대는 정기간 등록금 규제 속에서 교육·연구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논의 역시 국·사립대가 함께 미래교육과 AI 전환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교육계 화두 중 하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 제도가 폐지됐는데, 이번 교부금



전민현 회장은... 한양대 금속공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미국 캔터키 대학교에서 재료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인제대 나노융합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연구혁신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거쳐 인제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3월 국내 4년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 정책에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불균형 우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균형발전장학금… 국립대 쏠림에 사립대 소외
“인구소멸지역 내 대학부터 지원하고 장학금도 학생 보고 투자해야”

유학생·AI 교육까지 대학 간 재정지원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중요

국공립·사립대 간 유학생 1인당 실질적 공적지원 수준 객관적 분석 필요
AI 발전 속도 빨라… 인프라 구축 등 예산 2000억 원 수준까지 확충해야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과 미래대응기금을 고등교육에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 개편은 국내 교육재정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그동안 국내 교육재정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투자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재정은 일회성 사업의 재원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투자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인재 양성, 대학의 AI 전환, 우수 연구인력 확보, 성인·평생교육, 글로벌 인재 유치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새롭게 마련되는 재원이 기존의 국립대 중심 지원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교육·연구 기능, 지역산업 기여도, 혁신성과 등을 기준으로 국·사립대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재정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학가에서는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국립대 집중 지원이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이 향후 고등교육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가.

“국립대 육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거점국립대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자산이고 국가가 책임 있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가 담당하는 구조에서 국립대 중심의 지원만으로 전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장학금뿐 아니라 교육·연구 인프라와 첨단분야 투자까지 국립대에 집중되면 지역 내 대학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지

학생과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 정책이 수도권 학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되는지, 아니면 지역 안에서 학생을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이동시키는 결과가 되는지 하는 것이다. 국립대 지원으로 지역 사립대의 기반이 약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립대에 지원되는 지역인재장학금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입시 영향을 분석해 지역 사립대 학생에 대한 보완책을 탄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는 수도권으로 떠나려는 청년이 지역에 남고, 지역의 어느 대학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은 뒤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학생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단순히 ‘외국인에게 등록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외국인을 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국적이나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원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이미 상당 부분 투입되어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국공립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낮은 등록금을 적용할 경우, 국가재정으로 낮은 교육비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2025년 4년제 대학 외국인 학생 15만 2838명 가운데 89.7%인 13만 7080명이 사립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유학생 수 상위 20개 대학도 모두 사립대다. 사실상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교육에서 사립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공립대는 국가재정을 통해 낮은 등록금과 양질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고, 사립대는 대부분 자체 재원으로 유학생을 유지하고 교육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대에 재학하는 유학생은 국가재정이 투자된 교육환경의 혜택을 받는데, 사립대에 재학하는 내국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적 투자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국공립과 사립대의 외국인 학생에 대해 등록금, 정부장학금, 대학 자체 장학금, 교육·연구시설, 기숙사와 정주지원 등을 포함한 ‘학생 1인당 실질적 공적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에게는 국·사립을 가리지 않고 충분한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되, 대학의 기본 등록금은 실제 교육비와 대학이 받는 국가재정 수준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대학의 AI 교육 혁신과 AX를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AI 전환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모든 대학과 학생이 최첨단 AI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최첨단 AI 모델의 구독료, 클라우드와 GPU 사용료,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AI 실습환경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대학의 재정여건에 따라 어떤 학생은 최신 AI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어떤 학생은 무료 서비스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대학 간 재정 격차가 학생 간 AI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2027년부터 대학생 AI 공동구축에 200억 원을 편성하고,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분담해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와 전국 대학의 수요를 고려하면 훨씬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사총협에서는 AI 기본교육과 공동구독 등 대학 AI 교육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교육과정 개편, 교수자 재교육, 첨단 기자재와 컴퓨팅 인프라, 대학 간 공동활용체계까지 함께 구축하는 데 있다. AI를 잡하는 소수 전문가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모든 대학생의 AI 활용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 학령인구 감소와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학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단순히 ‘어떤 대학을 몇 개 줄일 것인가’의 문제로 보서는 안 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대학 역시 지금까지와 똑같은 규모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혁신’이다. 대학별 강점 분야에 집중하는 특성화, 산업수요에 맞춘 학교와 교육과정 개편, 대학 간 공동교육과 시설 공유, 필요한 경우 통합, AI-첨단산업 인재양성, 성인과 재직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취업·정착 연계 등 대학 역할 자체를 다변화해야 한다. 또 대학정책을 산업정책, 고용정책, 지역정책과 연결해야 한다. 입학에서 교육, 취업,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대학에 혁신을 요구하면서 등록금, 학사, 정원 등 모든 것을 과거의 규제로 묶어 놓아서는 혁신하기 어렵다. 책임 있는 대학에는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환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뿐 아니라 대학 기부문화 활성화,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다양한 자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한국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사총협 회장으로서 정부와 교육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국내 고등교육 정책을 국립대와 사립대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매우 특수한 구조다. 사립대는 국가재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에 국민의 고등교육 수요를 감당했고, 수많은 산업인재를 배출했다. 현재도 지역산업과 의료, 연구, 문화, 평생교육의 중요한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특정 학교나 사학법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사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일이 아니다. 국립대는 국립대의 역할을 하고, 사립대는 다양성과 자율성, 특성화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대를 단순히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정책 파트너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은 어느 대학을 선택하든 우리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리 = 주지영 기자 marigold@unn.net

사진 = 김익진 기자 bonoya@unn.net



최용섭 본지 주필 겸 편집인(왼쪽)과 전민현 사총협 회장이 한국대학신문 본사에서 한담을 나누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시험의 '형식'보다 '목적'부터 고려해야

대학입시는 어떤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가. 1994학년도 수능 도입 당시 우리 사회가 요구했던 인재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은 달라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입은 여전히 수능 성적과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학생을 변별하고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과 기업의 인재 선발 간 간극도 커지고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4회에 걸쳐 수능과 대학입시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평가 시스템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쓰는 순서

- ① 수능은 어쩌다 'N수생·반복훈련' 시험이 됐나
- ② 대학이 보는 인재, 기업이 찾는 인재
- ③ 수능 이후의 수능, 미래 대입은 어떤 모습이여야 하나
- ④ 세계의 대입은 어디로 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논의하면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객관식 중심의 현행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더해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수능 문항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는 미래 대입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험생

을 변별하는 현행 대입 구조가 유지된다면 서·논술형을 도입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유형의 입시 대비와 사교육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험의 '형식'보다 무엇을 평가하려는 시험인지 '목적'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논술형 도입하면 달라질까... 대입 평가의 '타당성' 고민해야= 평가 문항을 객관식에 서·논술형으로 바꾸더라도 학생을 변별해 순위를 매기는 현 대입 구조가 유지된다면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선이다. 평가 방식만 달라질 뿐 학생들은 새로운 시험에 맞춰 정답을 찾는 또 다른 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는 "단편적인 수능이 아닌 입시라는 관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 과정에서 진로에 맞춰 학습한 내용이 고교 학습과 대학 전공 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의 '타당성' 없고 현 대입 구조 유지된다면 서·논술형 문항 도입도 '한계' 고교 과정부터 대학 전공으로 이어지는 연결성 핵심... 입시 관문 자체 바꿔야 단순 지식 평가 넘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 논리력 등 함께 평가해야

단절을 해소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입 평가의 '타당성' 문제라고 설명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고교 입학부터 대학 진학까지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전공마다 요구하는 학업 역량이 다른

만큼 고교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학습 내용도 달라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필요한 학업 역량이 각기 다르고 같은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세부 전공에 따라 요구되는 기초 소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예컨대 서양 철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라면 고교 단계부터 그리스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이라면 한자를 익히으로써 전공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상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다른 인문사회 계열보다 수학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지식 넘어 '소통·논리·비판력' 평가해야= 대입에서 평가하는 역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도 과제다.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췄는지는 절대평가로 확인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 논리력과 비판력 등을 교육과 평가가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일 대표는 "어느 수준 이상의 지식은 필요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평가로 측정할 수 있다"며 "지금의 대입에서는 주로 지식을 평가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 논리력, 비판력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 간 괴리와 맞닿아 있다. 대학의 대부분 학과와 교육과정은 학문적 지식과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제 업무에서는 전공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역할이 개개인에게 요구된다.

김 대표는 "지금의 교육 체계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며 "대입을 거쳐 대학에서 4년간 지식을 배워도 취업이 안 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개념 이해부터 탐구·논증까지... IB DP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탐구·표현하는 과정까지 교육과 평가가 반영한 사례로는 국제 바칼로레아(IB)의 디플로마 프로그램(DP)을 들 수 있다.

IB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념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DP는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언어와 문학, 언어습득,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 등 6개 교과군에서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과목은 표준수준(SL)과 심화수준(HL)으로 구분되며 학생들은 선택한 과목을 2년에 걸쳐 학습한다.

교과 학습과 함께 지식이론(TOK), 소논문(EE), 창의·활동·봉사(CAS)로 구성된 핵심과정도 이수한다. TOK에서는 교과 간 통합적 사고를 훈련하고 EE에서는 학생이 연구 질문을 설정해 독립적으로 연구한 뒤 최대 4000단어의 소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CAS에서는 창의·신체·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 방식도 지필시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과에서 학교 교사가 채점하는 내부평가와 IB가 주관하는 외부평가를 병행하고, 과목에 따라 구술과 에세이,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성취 수준을 살펴본다.

국내 IB DP 운영 학교의 수업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경북대사대부고 '언어와 문학' 수업에서는 문학·비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글로벌 이슈를 찾아 분석하고 이를 발표와 에세이 작성, 토론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교과별 지식의 성취도를 확인하면서도 학생이 배운 내용을 분석하고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까지 평가에 포함하는 구조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탐구·논증하는 과정이 교육과 평가 과정에서 함께 이뤄지는 점도 특징이다.

시험 형식보다 평가 목적부터... "교육의 연결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향후 대입 개편 과정에서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입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후조 교수는 "대입의 본질은 관련 공부를 해나가기 전 시험을 통해 수학적 능력이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입은 진로별로 함목적성과 타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일본의 본고사가 오랜 역사를 토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타당성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갖췄기 때문"이라며 "단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잊어버려도 되는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sulsul@unn.net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진로·적성에 맞게 과목 선택

현재 고2 학생들 첫 적용 대상
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폐지
사회·과탐 통합형 체제로 전환

내신 5등급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마련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석차에 따라 학생을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등으로 구분해 왔다. 반면 5등급제에서는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로 구간이 넓어진다. 1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 4%에서 10%로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지나친 내신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대평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내신 유발리가 아닌,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됐다.

새 내신 체제에서는 절대평가인 성취도(A~E)와 상대평가인 석차등급(1~5등급)이 함께 기재된다. 학생이 일정한 학업 수준에 도달했는지 성취도로 확인하면서도, 대학이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석차등급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은 내신 등급의 유발리에 따른 과목 선택을 줄이기 위해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내신 개편과 함께 2028학년도 수능 체제도 달라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체제로 전환된다.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출제되며, 사회·과학탐구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된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발리를 줄이고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적인 기초 소양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김소현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1도1국립대학

춘천캠퍼스·강릉캠퍼스·삼척캠퍼스·원주캠퍼스

도민의 일상 바꾸는 혁신... 지·산·학·연 원팀으로 글로벌 생태계 완성

2026년 올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된 이후 맞이하는 사실상 첫 성과 점검의 해다. 동시에 ‘지역성장 인 재양성체계(ANCHOR·앵커)’ 개편과 맞물려 지난해 ‘준비의 시간’을 넘어 ‘실행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2년 차로 평가된다. 지난 1년이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과 과제 설계, 거버넌스 정착 등에 무게를 두고 추진됐다면, 이제는 대학이 지역과 산업, 일자리, 정주 여건을 어떻게 연결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대안으로 급부상한 앵커는 기존 라이즈에서 강조된 대학 지원 자체보다는 지역 주도의 학생 등 수요자 중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 혁신 플랫폼,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취업·창업·정주 중심의 인재양성 목표는 더욱 구체화한 상태다. 이에 본지는 ‘지역별 앵커 참여대학 특징’을 통해 각 지역의 수행대학들이 지자체의 비전과 핵심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2년 차 사업에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장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수도권-3특 앵커 하계 포럼.

전북특별자치도는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교차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위기를 지역 산업 체질과 고등교육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기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전환의 중심에는 ‘지역 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단순한 대학 재정 지원을 넘어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세우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앵커센터(UB지산학협력단)는 전북이 보유한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등 독보적 산업 자산에 도내 14개 대학의 지식 역량을 결합하는 거대한 지·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대학의 혁신이 곧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도록 체계를 재편하며, 14개 시·군 전역이 동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단순 수치 넘어선 ‘시스템의 승리’ 1차년도 우수사례가 증명한 혁신 인프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도민 행복 증진을 이끄는 전면적인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 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 발전(JB-TEAM)이라는 4대 핵심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전북 앵커 1차년도의 가장 큰 수확은 단기적인 실적 창출을 넘어 지역혁신이 흔들림 없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이식했다는 점이다.

먼저 전국 최초로 실증한 ‘기초지자체(시·군) 다년 매칭펀드를 통한 지속가능 재정구조’ 확립이다. 대다수 시·도가 광역 단위(도비)의 대응자금 중심인 반면, 전북은 도내 13개 기초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5년간 약 90억 원을 약정 매칭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과제가 시·군의 생활 밀착형 현안과 직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앵커 사업 종료 후에도 기초지자체의 자체 정책과 예산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이어 진단·배분·측정·관리·환류를 하나로 연결한 데이터 기반 성과 순환 운영체계가 가동이다. 전북앵커센터는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에 머물지 않고, 1,0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채용 수요 8,398명, 인력양성 수요 33,580명 도출)를 통해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를 정밀 진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앵커 성과관리시스템(플랫폼)에 연동해 사업비 집행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했으며, ‘지·산·학·연 생태계 지수’를 도입해 사후 평가가 아닌 상시 관리형 체계를 구현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수요 분석은 산학협력의 외연확장으로 이어지면서 1차년도에만 총 454개의 기업·기관이 실제 산학협력 과제 수행 및 기술지원에 동참하는 결실을 맺었다.

데이터 기반 상시 성과관리·전략산업 R&D 클러스터 등 1차년도 핵심 인프라 구축 기초지자체 13곳 약 90억 매칭펀드 투입... 지역 밀착형 지속가능 재정 모델 실증 2차년도 민선 9기 ‘피지컬 AI·K-푸드’ 연계... 초광역 공유대학 허브로 스케일업



지난해 12월 열린 전북RISE 모범진척 사례 공유회 장면.

‘전북 전략산업 정합형 연구클러스터 구축’도 눈에 띈다. 중앙 부처 주도의 획일적인 하향식 R&D의 한계를 탈피하고, 새만금 이차전지(RE100), 미래 모빌리티, 농생명 바이오 등 국가급 전략산업 거점에 대학의 연구 클러스터를 1:1로 매칭했다. 클러스터 단위의 포괄 지원을 보장한 결과, 1차년도 공동연구 수행 실적이 312건에 달했으며, 특허·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39건, 기술이전 및 사업화 15건 등 굵직한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했다. 나아가 동 협력 연구가 활성화되며 CES 2026 혁신상 2건 수상, 시제품 매출 8억 원 달성, 유망 기술이전 등 대학의 연구가 즉각적인 기술사업화와 기업 집적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증명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질적인 성과 지표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다. 기업 연계 및 기초·융합 전공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가 1만 1,316명에 달하며, 거점국립대 중심의 JST 공유대학은 미래 융합 인재 양성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 교육을 이수한 학생 수가 증가하고, R&D 실무에 투입되는 학생 연구원 풀(Pool)이 확장되는 등 교육의 성과가 실제 청년 창업과 연구 역량 강화로 직결되는 생태계가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했다. 아울러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을 거쳐 실제 취·창업에 지원받은 인원도 1,026명을 기록해 지역 정주의 튼튼한 다리를 놓았다는 평가다.

“대학이 지역 속으로”...

시스템이 이끈 지·산·학·연 동반성장 스토리

전북형 앵커의 단단한 3대 혁신 인프라는 곧바로 대학들의 자발적인 현장 혁신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전북앵커센터가 주최한 ‘2025 전북RISE 모범진척사례 공유회’는 4대 프로젝트 위에서 도내 대학들이 어떻게 낚은 틀을 깨고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지를 입증한 무대였다.

JB-SPARK(생명·전환산업 혁신) 트랙에서

는 지역 앵커기업·연구기관 등과 ‘ONE·TEAM’을 구성한 전북대 연구진들이 헴프(HEMP) 산업화, 수소전기버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신산업의 기술적 난제를 직접 돌파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실증해 냈다.

JB-ROOT(주력산업 성장)·JB-TEAM(동행협력) 분야에서는 기업 수요와 기초지자체 매칭펀드의 시너지가 돋보였다. 국립군산대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수산식품·대두부산물 리빙랩’을 가동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진출 등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원광보건대는 초고령사회 지역 현안에 대응해 19개 산업체와 라이프케어 주문식 협약안을 구성, 95명에 달하는 채용 연계 성과를 창출하며 현장 중심 실무 인재 공급망을 완성했다.

아울러 JB-EVERLEARN(평생교육 가치 확산) 트랙을 통해 대학들은 도민의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산간호대는 재직 간호사 대상 한국전문노생술(KALS+)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지역 응급의료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으며, 우석대와 원광대는 지역 축제·지유 산업과 연계한 성인학습자 진화형 학사체계로 도민의 커리어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2차년도 앵커 고도화... 민선 9기 비전 융합 및 초광역 협력 기반 스케일업

1차년도의 성공적 안착을 발판 삼아 전북은 2차년도를 기점으로 지역혁신의 무대를 ‘초광역’ 단위로 대폭 확장하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특히 앵커 사업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의 핵심 도정 목표인 ‘글로벌 최강 피지컬 AI·로봇 도약’과 ‘글로벌 K-푸드 혁신 허브 구축’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대학의 지식 인프라가 곧 도정의 미래 첨단산업 전략을 실행하는 든든한 기반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연세대학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앵커센터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3특 앵커 하계 포럼(부제: 혁신의

시너지, 균형 성장을 이끈다)’은 이러한 초광역 스케일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포럼에서 전북은 농생명 자원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초광역 협력 모델’을 제안해 전국적으로 주목 받았다.

전북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곧바로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교육부가 지난 9월 8일 발표한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에서 전북특별자치도(주관)·경기 연합 모델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행정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 단위로 현장 인재를 키우는 메가프로젝트로, 우석대학교를 주관으로 경기권 대학들과 연합한 전북은 ‘수소 및 식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에서 향후 4년간 2,000명의 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며 최대 600억 원(연 최대 150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러한 거대한 도약과 함께 전북은 거점국립대인 전북대를 허브로 삼아 기존 JST 공유대학을 ‘초광역 공유대학’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소, 피지컬 AI,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등 전북의 메가 성장엔진을 타 광역권 대

학·연구기관 등과 공동 대형과제로 연결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수평적 초광역 협력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지방 소멸 넘어 글로벌 거점으로 전북형 지·산·학·연 생태계 안착

전북 앵커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혁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13개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재정 참여, 데이터 기반의 상시 성과 관리, 민선 9기 첨단산업 비전과 직결된 실무 인재 양성 체계는 전북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를 주도적으로 극복하는 선도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형 앵커 체계를 통해 대학의 연구와 기업의 생산 현장, 도민의 일상이 하나의 혁신 생태계로 융합되며,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생명경제 특화도시’로 도약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영식 기자 coolys@unn.net

제작지원 : (재)전북테크노파크

인터뷰 채수찬 전북앵커센터장

“억지 정주 대신 열린 생태계... 인재 찾아오는 전북만들 것”

-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북 앵커만의 특성화 전략이 있다면.

“앵커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을 활용하는 법을 체득하고 지자체 자신의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대학이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전북앵커사업은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적 접근과 초광역을 넘어선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역대학 졸업생을 지역에서 취업해 살게 하자는 접근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도권 취업을 억제하고 비수도권 취업에만 기점을 주는 교육부의 성과지표체계는 지역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대학 스스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춰 타 지역의 우수 인재가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들고, 졸업생들이 지역은 물론 세계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북만의 진정한 특성화 방향이다.”

- RISE→ 앵커 개편 속 전북형 앵커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주신다면.

“정책 이름이 바뀌고 정부 요구에 맞춰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피로도 가 높다. 사업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잦은 제도 변경이나 예산 증감이 따르는 단기 평가는 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업 찾해인 2026년 사업 진행 중에 예산이 감액되면 사업을 중도포기해야 하고, 예산 증액에 따른 추가사업도 몇 개월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등 대학의 교육

과 연구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운용 방식이다. 하지만 전북은 이러한 외부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과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연구의 본질을 묵묵히 지켜나갔겠다.”

- 지난 1차년도 사업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체감상 변화가 있다면.

“가장 큰 변화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가 ‘연대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전북의 14개 대학과 13개 기초지자체는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 454개 기업 동참이라는 기적 같은 1차년도 궤도를 만들어 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이 결속력이 가장 값진 변화다.”

- 전북 앵커 수행대학과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 말씀 전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남에게 얽매이지 않는 학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지역 혁신이라는 의미 있는 과제에 봉사하고자 지난 1년 반 동안 전북앵커센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힘을 썼다. 이제 앵커 사업의 첫 번째 사이클이 안착했기에, 저는 곧 센터장 직을 내려놓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매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역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중앙정부는 잦은 정책 변경보다 긴 안목의 안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주길 바라며, 지자체와 대학들은 자금처럼 지혜롭게 협력해 전북의 든든한 미래를 열어주기를 당부드린다.”





지역 의료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간호인재 정주 기반 만든다

의료기관 현장실습·멘토링부터 채용 연계까지 현장 적응력·취업 지원 강화
5개 지역 창업기관 연계해 간호 전공자의 창업 역량과 진로 선택지 확대
재직자 업스킬·성인학습자 창업교육으로 지역 맞춤형 역량 재교육 추진

군산간호대학교(총장 고대용)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학 앵커사업(이하 전북 앵커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의료·돌봄 수요와 대학의 간호교육 역량을 연결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AI 기반 지역 정주형 통합돌봄 교육,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직무교육, 지역 수요 기반 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실습·취업·정주가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지자체·산업체 등 지역에 필요한 간호·보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urse Stay Up' 운영... 취업 경쟁력 강화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은 재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Nurse Stay Up'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실제 병동 업무와 병원 조직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선배 간호사 멘토링을 통해 신규간호사의 업무와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의료기관별 채용 특성을 반영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교육에도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기회가 됐다.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현장 경험부터 취업, 지역 정주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지역 정주형 간호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JB 스타트업 간호 창업캠프' 운영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은 지난 8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JB 스타트업 간호 창업캠프'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KHF 2026 국제 병원·헬스테크 박람회'를 참관하고 국내외 의료산업 관련 기업

과 스타트업 부스를 탐방했다.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산업의 변화와 간호·보건 분야의 창업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진로·창업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5개 창업기관 연계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이 운영하는 '지역 창업기관 연계 현장실습 기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로 지역 창업지원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북 앵커사업의 일환으로 간호 전공 학생들이 실습·취업을 넘어 창업까지 진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역 창업기관 5곳과 협력해 운영했다.

앵커사업단은 향후 지역 창업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JB 취·창업협의체 운영을 통해 창업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취업까지 잇는 인턴십 모델 눈길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이 운영하는 '지역 의료기관 연계 스테이 인터널스 프로그램'이 국가고시합격 98.5%, 지역 취업률 79%의 성과를 내며 대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재학 중 현장실습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주형 간호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앵커사업단은 향후 지역 의료기관과의 채용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취업박람회·병원채용설명회, Nurse Stay Up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졸업생의 취업·지역 정주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고도화할 방침이다.



nurse stay up 이수식.

응급소생술 재교육을 지역 의료 역량 강화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은 전북 앵커사업 Track III-3 역량재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의료기관 재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KALS-P(Korean Advanced Life Support-Provider) 재직자 업스킬 과정'을 운영했다.

지난해 군산·전주 권역 의료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총 3회의 순회형 교육을 실시해 재직 간호사 42명이 참여했으며 KALS Provider 합격률 90.5%, 참여자 만족도 4.92점(5점 만

점)을 기록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근무 중인 간호사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전북앵커센터는 컨설팅을 통해 "책임교수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간호학과에 특화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활동으로 타 사업단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은 올해도 재직자 업스킬 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참여 인원과 협력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자적 취득 이후 현장

적용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성인학습자, 간호 현장서 창업 아이디어 발굴

군산간호대 앵커사업단은 전북 앵커사업 Track III-3 역량재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성인 학습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동아리)'을 운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인학습자 재학생 10명이 2개 팀으로 참여해 전문가 특강과 멘토링을 바탕으로 임상 현장의 불편을 발굴하고 이를 캡스톤 디자인 방식의 창업 아이디어로 구체화했다. 그 결과 이수율 100%, 참여자 만족도 4.58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A팀은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와 LED 와이어를 결합한 '부착형 혈관 투영 장치', B팀은 자가도뇨·간호 실무의 효율을 높이는 'Hands-Free Labial Retractor(양손이 자유로운 음순 견인기)'를 고안했다. 두 아이디어는 RISE 사업 공모회에서 결과물 전시를 통해 공개됐다.

앵커사업단은 향후 창업 전문가 컨설팅과 아이디어 고도화, 시제품 개발·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연계해 우수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인규 기자 pig0920@unn.net

INTERVIEW

고대용 총장

"75년 간호교육에 AI 더해 전문성 강한 대학으로"

"군산간호대는 1951년 설립 이후 75년 동안 간호교육에 집중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을 이끌어갈 전문 간호 인재를 양성해 왔다. 이제 우리 대학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간호교육의 전문성을 대학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산업, 미래 보건·의료 분야로 넓혀갈 때다."

전북 앵커사업은 이러한 변화와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대학·지자체·의료기관·보건기관·돌봄기관·산업체가 서로의 역량을 연결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 함께 양성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군산간호대는 탄탄한 전공교육과 임상 실습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환자안전, 재난·응급 등 현장 중심의 교육역량을 고도화하고 AI·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건강관리 등 미래 보건·의료 분야로 교육의 영역을 확장해 변화하는 의료·돌봄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길러낼 것이다.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 간호센터'를 중심으로 간호교육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교육·연구·실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간호센터를 통해 AI 기반 간호교육과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돌봄과 AI 돌봄기술을 실제 간호·돌봄 현장과 연계해 교육과 연구, 기술 실증이 함께 이

루어지는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인공지능을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협업하며 새로운 간호와 돌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형 간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앵커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기관, 보건기관, 돌봄기관,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간호센터의 교육·연구·실증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취업, 지역 정주, 재교육이 선순환하는 지역 보건·의료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양성과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앞으로 군산간호대는 규모가 아닌 전문성의 경쟁에서 강한 대학이 되겠다. 지난 75년 동안 축적한 간호교육의 깊이에 인공지능과 미래 보건·의료라는 새로운 영역을 더해 학생에게는 미래를 열어주는 대학 지역에는 보건·의료와 돌봄의 든든한 파트너 대한민국에는 미래 간호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강한 간호대학으로 발전하겠다."



2027 군산간호대학교

KUNSAN COLLEGE OF NURSING

인성과 실력을 갖춘 상생 · 협력의 간호인재 양성

Leading the Future of Nursing

미래를 선도하는 간호교육의 중심,
군산간호대학교

SINCE 1951
간호교육의 역사와 전통

입학 안내

	수시모집	2차 2026. 11. 11(수) ~ 11. 25(수)
	정시모집	2027. 01. 04(월) ~ 2027. 01. 20(수)
	입학문의	063) 450-3871~3

간호교육 77년... 앵커사업으로 산업체·학교·지역사회 연결

77년간 축적한 교육 역량으로 전북 생명·전환산업 연계 간호 인력 양성
지역 특성 반영한 특화 간호교육 모델 고도화... 지역 정주 취업 지원
보건의료 전문가 재교육 강화... 대학의 교육 역량 지역사회와 공유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는 1950년 개교 이래 77년간 간호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보건의료 현장과 함께해 왔다. 간호교육을 통해 축적한 교수진의 전문성과 실습 인프라는 예수대가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자산이기도 하다.

예수대 앵커사업은 이러한 강점을 전북의 생명·전환산업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 8대 생명·전환산업 가운데 예수대가 특화한 분야는 생명서비스웰니스다. 간호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돌봄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교육 역량을 산업체와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것이 사업의 방향이다.

예수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명·전환 분야 특화 간호교육 모델을 고도화하고, 전북 8대 생명·전환산업에 맞춘 주문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 정주 취업을 지원한다. 또 지식·산·학 공유·협력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 각종 학교·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리빙랩과 간호융합 캡스톤 디자인 등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도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향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체와 연계한 주문식 교육과 재직자 재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학교에는 대학의 교육시설과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에게는 간호교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등 생명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예수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넘어 산업체 보건의료 전문가, 각종 학교, 초·중·고·대학과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대학의 교육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교육을 통해 만나는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현장 수요를 교육에 담다... 지역 정주형 간호 인재 양성

예수대는 지역 산업체와 대학의 교육을 연결하는 대표 사례로 예수병원 연계 주문식 교육을 추진했다. 간호학부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예수병원 소개와 취업 준비를 위한 특강을 비롯해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정맥수액주입과 유지도뇨 등 산업체 요구 기반 핵심기본간호술 실습이 이뤄졌다. 단순한 취업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간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경험하고 산업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예수대와 예수병원은 교육과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우수 이수생이 신입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했다. 대학에서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쌓은 학생들이 지역 산업체의 채용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연결고리를 마련한 셈이다.

예수대가 지향하는 정주형 인재 양성에 이 같은 교육과 취업의 연결에서 출발한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2차년도 사업은 예수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주문식 교육과 채용 연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예수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부터 채용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산업체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지역 정주형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넓혀갈 계획이다.

채용을 넘어 재교육까지...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대학

예수대의 산업체 연계는 졸업생의 취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장의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필요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며 대학의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1차 교육은 지난 3월 18일 교내에서 '1차 산업체 연계협력 보건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주시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I·Google Workspace 기반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업무 역량 향상'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무자료 제작과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반 협업 도구 활용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전주시가족센터 직원 등 총 38명이 참여하였으며 4.82점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2차 교육은 지난 4월 10일 국립전안고원산업지원원에서 전북대병원 간호부와 협력으로 진행됐다. 임상 실습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습지도자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티 예수대 간호학부 교수가 '간호 리더 온기 리더십-멈춤, 채움 그리고 밝힘'을 주제로 특강을 맡았으며, 전북대병원 임상실습지도자 3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자존감 회복과 마음의 치유,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두 차례 교육의 재직자 교육은 디지털 전환과 리더십 등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해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예수대는 산업체와의 교육 협력을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대학이 가진 실습 인프라와 교육 전문성을 산업체와 공유하고, 산업체의 현장 사례와 교육 수요를 학생 대상 대학 교육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대학과 산업체가 서로의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간호교육의 전문성을 지역주민의 생명 안전으로

대학의 전문성은 학생 교육과 산업체 재교육에만 머물지 않는다. 예수대는 간호학부의 전문 인력과 교육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명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대학의 간호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례다. 2026학년도에 4회차 교육을 진행했으며 총 57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에서는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을 활용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을 다뤘다.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도 함께 진행해 실제 응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간호학부 교수진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면서 대학에서 학생 교육에 활용하는 전문성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했다.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실습 인프라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향후 전주시 가족센터나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대상을 넓히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생명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의 학교와 대학을 잇다... 보건의료 교육자원 공유

예수대의 교육자원은 지역 학교와의 연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대학의 실습시설과 전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이초 5~6학년 학생 16명은 예수대 캠퍼스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Human Anatomy VR을 활용해 인체 구조를 살펴보고, 현미경으로 혈구를 관찰했으며 감염예방 보호구를 직접 착용했다. 예수대 교



산업체 채용 연결형 주문식 교육과정 「현장간호 프리온보딩」.

수진과 간호학부 학생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했다.

교육 만족도 중 '새로운 것을 배웠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항목은 각각 4.81점(5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대학의 전문 교육인프라를 지역 학생들의 진로·학습 경험으로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교와 대학의 연결은 초·중·고·대학 대상 프로그램에만 머물지 않는다. 예수대는 예비 교원과 현직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연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교직부재학생 31명이 참여하고 전북 지역 초·중·등 현직 보건교사 6인이 멘토로 참여해 학교 현장의 역할과 보건교육 사례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예수대의 보건의료 교육 역량을 학교 현장과 연결하고,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이 실제 학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산업체·학교·지역사회 연결...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

예수대가 추진하는 앵커사업의 특징은 대학의 교육자원을 예수대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문식 교육을 통해 학생의 현장 역량과 취업을 연결하고, 재직자 교육을 통해 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지역 학교와 주민에게는 대학의 교육시설과 전문성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연계·지역현안 문제 해결의 범위도 전북특별자치도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수대 학생들은 지난 8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26 초·중·고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심심 프로젝트 in 여수에 참여해 대·중·고 학생들과 함께 섬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의료·교통 인프라 부족 등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대학의 교육을 지역 현장에 적용하고 타 대학 학생과 협업하며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경험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현재 2차년도 사업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AI·융합·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응급간호·중환자간호·학교보건 나노디그리(ND)와 웰니스 분야 소통 공감, 웰에이징, 데이터인포 마이크로그리(MD)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간호 전문성과 AI·융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가상현실과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 교육도 강화해 실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학생 성장 지원도 교육과 취업의 연결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지역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

한 주문식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학생별 피드백과 퍼스널 브랜딩 지원 등을 통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학생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인재 취업매칭 플랫폼과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정주형 취업을 지원하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산업체와의 협력 방식도 교육과 취업을 넘어 공동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로 넓어진다. 대학의 실습 인프라를 산업체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현장 교육 시나리오와 사례를 대학 교육에 반영해 학생들에게 보다 현장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

상사례뱅크를 구축해 다양한 임상사례를 간호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연계의 한 축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결에서는 생활 속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리빙랩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 통합돌봄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산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범위도 넓혀갈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sulsul@unn.net

INTERVIEW

김찬기 총장

“학생 성장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대학”

“예수대는 77년간 간호교육을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 오랜 시간 쌓아온 간호교육의 경험과 전문성은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제는 그 자산을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앵커사업은 이러한 예수대의 강점을 지역의 필요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예수대가 특화하고 있는 생명서비스 웰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체와 교육을 연결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산업체와 연계한 주문식 교육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연결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지역의 산업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과 지역 학교·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대학의 전문성을 지역과

나누는 과정이다.

예수대가 지향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대학이다. 학생들에게는 전문성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체와 지역사회에는 대학이 가진 교육과 연구 역량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간호교육을 중심으로 AI와 융합교육, 실습교육을 고도화하고 산업체와의 교육·취업 연계를 강화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과 생명안전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6 초·중·고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심심프로젝트 in 여수」.

배움과 연구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전북형 산학협력 생태계 확장

현장 중심 인재 양성부터 기업지원·정주까지... 지산학연 협력으로 전북 미래 준비
이차전지·첨단소재·농생명 등 연구클러스터로 글로벌 수준의 R&D 경쟁력 입증
1차년도 기술상당·자문 77건, 시제품 제작 21건 지원... 체계적 공공조달 인증 지원

지역에서 배운 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역량을 펼치고, 대학의 연구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앵커사업단이 지향하는 지역혁신의 모습이다. 앵커사업단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전북의 산업 수요와 연결하며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지역 사회 협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 혁신기관이 각자의 지원을 모아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전북의 산업 여건과 변화에 대응하는 생명·전환산업이 주요 기반이다. 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생명서비스·웰니스(Wellness)와 첨단소재, 모빌리티, 문화관광,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의 접점을 넓힌다. 학생에게는 현장을 이해할 기회를, 기업에는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제공해 대학의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도록 한다.

기업의 과제를 풀며 성장하는 현장형 인재

인재 양성의 출발점은 산업 현장이다. 앵커사업단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연계 교과목과 표준형 현장실습, 산학협력 캡스톤디자인을 연계해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기업연계 교과목은 현장 중심 교육의 핵심 축이다. 앵커사업단은 학기마다 50여 개의 전공 교과목을 개설하고, 지역 8대 주력산업 분야별 기업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전문가가 강의와 실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산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현장 실무 기술을 전공 강의실에서 직접 체득하고 있다.

캡스톤디자인에서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제시한 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설계·제작·검증하는 경험을 쌓는다. 이 과정에서 교수와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결과물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6월 개최한 2026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는 100여 개의 학생 팀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 동작 분석 등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이며 전공 간 협업과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줬다. 앵커사업단은 이러한 경험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

고 후속 연구와 기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기반도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공학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CAE 실습실을 구축해 학생들이 설계와 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재직자에게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AI 활용, 제품 안전·적합성, 기술제품 인증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인력의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전공의 경계를 넘는 학습도 중요한 과제다. 앵커사업단은 산업별로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익히는 소단위 교육과정과 융합교육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함께 발전시키는 연구클러스터

연구클러스터는 대학의 전문성과 기업의 현장 경험을 결합하는 핵심 산학협력 플랫폼이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전북 전략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양성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기간 동안 클러스터를 통해 창출된 논문 실적은 총 78편에 달하며, 2차년도를 맞아 폭발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첨단소재·센서, 농생명 바이오, 차세대 통신 등 지역 주력 산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SCI급 상위 저널)에 집중 등재되며, 지역 중심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수준의 R&D 경쟁력을 확고히 갖췄음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험과 분석을 넘어 기업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실제 적용 조건을 배운다. 기업은 대학의 전문인력과 연구 기반을 활용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앵커사업단은 공동연구의 결과가 논문과 특허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기술에 맞춰 대학의 연구역량 연결

기업 지원은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품 개발이나 공정 개선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시험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

다. 1차년도에는 기술상당·자문 77건과 시제품 제작 21건을 지원했다. 기업의 수요와 기술 수준에 맞춰 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결하고, 후속 산학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도 함께 살핀다. 공공조달 인증 지원에서는 제품 분석과 인증요건 검토, 신청서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준비 등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6개 기업이 신제품·신기술 인증 또는 혁신제품 지정을 획득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과 바이어 상담 기회도 제공하며 지역 기업이 기술을 알리고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배움에서 창업·정주까지 잇는 지역의 기회

인재가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교육 이후의 경로가 필요하다. 앵커사업단은 창업교육과 단계별 보육, 전문가 연계를 통해 학생과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기업과의 접점을 넓히는 교육·취업 연계와 함께, 전북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외국인 인재 역시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구성원이다. 앵커사업단은 유치와 교육, 취업, 정주를 연계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전공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지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을 더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와 연결해 유학생이 전북에서 성장할 기반을 넓히고자 한다.

지역사회 협력은 주민의 삶과 다음 세대의 배움으로 확장된다. 통합돌봄과 건강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이공계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과학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넓힌다. 김제·남원 등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기록하는 지역자원 아카이브도 추진 방향에 포함된다.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교육·문화관광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접근이다.

교육과 연구, 기업지원은 사업 안에서 서로 맞물린다. 기업의 애로사항은 공동연구의 주제가 되고, 연구과제는 학생이 현장을 이해하는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장실습과 기업 협력으로 확인한 수요를 다시 교육에 반영하면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의 간격도 좁아진다. 앵커사업단은 각 프로그램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식과 경험이 다음 참여자에게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임언서 기자 lys81@unn.net



전북대는 지난 3월 '연구클러스터 구축 과제 1차년도 성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INTERVIEW

장태일 앵커사업단장

“전북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는 기반 만들 것”

“대학의 중요한 책무는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오늘날 지역거점국립대에는 그 인재가 지역에서 역량을 펼치고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역할도 요구된다. 학생이 강의실에서 익힌 지식을 기업의 현장에 적용하고, 연구실에서 시작한 기술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앵커사업단은 이러한 연결을 충실히 만들어가고자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돕겠다. 또 교수와 연구자, 기업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의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전북이 지닌 농생명 분야의 강점과 바이오, 청정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ICT의 가능성을 함께 살피겠다. 전북은 농생명 수도로서 농업·식품·바이오 분야의 풍부한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러한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 산업의 변화 속에서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지역이 스스로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창출된 성과가 후속 사업과 새로운 산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이곳에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청년에게는 배우고 도전할 기회를, 기업에는 함께 성장할 인재와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주민들이 대학의 지식과 자원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접점도 넓히겠다. 특히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취·창업 연계를 강화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역의 미래는 여러 주체가 꾸준히 힘을 모을 때 구체적인 모습이 됩니다. 앵커사업단은 대학과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서 각 주체의 역할을 결합하고, 지역의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 전북에서 배우고 일하며 살아가는 선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겠다.”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잇고, 지역의 가능성을 넓히는 전북대학교 앵커사업단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대와 함께 성장합니다

현장을 이끄는 인재

산업과 현장을 잇는 교육으로
전북의 내일을 이끌 인재를 키웁니다

산업을 바꾸는 기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기술의 가치를 산업의 성장으로 잇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지역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기회를 넓힙니다

전북대학교 앵커사업단 <http://anchor.jbnu.ac.kr>

교육·현장·지역을 하나로 연결해 전주기형 지역혁신 모델 구축

친환경모빌리티·헬스케어 중심 전북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치유농업 기반 지역서비스·로코노미 확산... 대학 전문역량 지역으로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하고 기술문제 해결... 지역정주 생태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산업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대학의 역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대학이 학생을 교육해 배출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산학협력 자원을 지역의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에 연결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 앵커사업단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 최고의 현장실무인재 양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혁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지식학협력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친환경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분야의 인재양성을 시작으로 치유농업 기반 J-커뮤니티와 로코노미,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협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의 핵심이다. 1차년도에는 기업연계

과와 자격증 취득, 창업교과와 창업동아리, 치유농업 기반 지역순환 모델, 지역기업·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 사업 전 영역에서 성과를 축적했다. 2차년도에는 교육성과가 취업과 창업으로, 다시 지역정주와 지역서비스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형 성과모델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AI부터 통합돌봄까지 전공 벽 허문 현장형 교육 확대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단의 첫 번째 축은 친환경모빌리티와 헬스케어에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이다. 대학이 보유한 전공과 실습 인프라를 전북의 미래산업 수요와 연결하고,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역량과 자격, 현장경험을 갖춰 지역기업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친환경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차전지·스마



전주기전대 전경.

트제조·AI 융합 등 전북 미래산업 수요에 대응한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한 '배터리 성능평가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서는 배터리 성능평가 이론부터 시험·분석 절차, 평가체계까지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

시한 결과 참여자 전원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2차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업연계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시제품 제작, 기업 채용까지 확장해 '교육·자격·직무인증·현장·채용'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대학의 강점인 보건·의료·복지·치유 분야를 연결한 JB융복합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정주형 전문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2026학년도에는 10개 학과가 참여한 학과 간 상호실습을 운영해 노인 건강관리, 응급처치, 임상검사, 작업치료, 산립치유, 해양치유, 운동재활, 유아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전문직 간 연계교육(PE)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서로의 전공 역할을 이해하고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무역량과 의사소통·협업역량도 함께 강화했다.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의 결과를 자격과 현장경험으로 증명하며, 최종적으로 지역기업·기관의 취업과 정주까지 연결하는 것이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단 인재양성의 차별점이다.

치유농업에 관광·문화 콘텐츠 더해 부안형 지역혁신 모델 구체화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의 색깔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는 치유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와 로코노미다. 전주기전대학은 대학이 축적해 온 치유농업 분야의 교육역량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광, 지역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치유농장과 농업·관광자원을 연계해 대학의 교육성과가 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역경

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부안군과 연계한 JB·TEAM 로코노미 거점 조성 프로젝트는 전주기전대학의 치유농업 역량을 지역산업으로 확장하는 대표 사례다. 부안의 자연·식문화·농업·예술자원을 결합한 '부안형 치유·관광 복합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치유농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과 치유여행 상품화, 스마트 치유농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의 범위도 지역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대학은 대만 타이베이 융정구농회·무봉구농회와 치유농업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인력 교류와 고령친화 지역관광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치유농업 자원을 글로벌 교류와 로컬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넓히고 있다.

2차년도에는 J-커뮤니티를 통한 교육·자격 취득·지역서비스와 로코노미의 치유관광 콘텐츠 실증 및 산업화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지역서비스→치유농장 연계→치유관광→지역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모델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 기반 지역혁신 모델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넘어 공동성과 창출로 전환 교육부터 기술개발·채용까지 기업 연계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단이 지향하는 산학협력은 단순한 협약 확대가 아니다. 기업의 수요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로 들어오고, 그 성과가 다시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채용으로 돌아가는 실행 중심의 협력이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기업연계 교과 운영, 산업체 전문가 참여,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공동연구·기술개발, 예로기술지도 등을 연계해 학생과 기업이 교육 단계부터 만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헬스케어 분야 53건, 친환경모빌리티 분야 26건의 산업체·기관 협약을 구축했으며, 로코노미 분야에서도 국내외 산업체·기관과의 협력 및 치유농장 협력체 구성을 통해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2차년도에는 산학협력의 무게중심을 '협력관계 구축'에서 '공동성과 창출'로 전환한다.

친환경모빌리티·헬스케어에서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학생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며, 치유농업의 전문성을 지역서비스와 로코노미로 확장하고, 이를 다시 기업의 기술수요와 일자리로 연결하는 구조다.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단은 1차년도에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대학을 지역의 인재·기업·산업·사회를 연결하는 '지역혁신 실행거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정 기자 crystal@unn.net

INTERVIEW

조덕현 산학협력단장

“지역의 필요를 듣고 대학의 역량으로 답하겠다”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단은 지역의 필요를 먼저 듣고, 대학의 역량으로 빠르게 답하는 사업단이다. 계획서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주민, 기업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성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전주기전대학은 사업의 출발점을 현장에 두었다. 교수와 직원이 기업과 마을을 찾아가 무엇이 필요한지 들었고, 그 목소리를 교육과정과 사업으로 설계했다. 학과의 경계를 넘어 빠르게 실행하는 힘, 농생명·바이오와 치유농업, 헬스케어 분야에서 쌓아온 교육 기반을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다.

부안군 J-커뮤니티 캠퍼스가 대표적이다. 주민을 대학으로 불러 모으는 대신 대학이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치유농업 퍼머컬처 디자인 전문가와 복지원예사를 양성하고, 배움이 마을정원과 치유농장, 주민의 일자리로

이어지게 했다. 치유·농업·관광을 결합한 로코노미는 익숙한 지역 자원도 교육과 기획을 만나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교육을 마친 주민이 다시 일을 시작하며, 지역의 자원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태어날 때 앵커사업은 비로소 완성된다. 전주기전대학 앵커사업단은 전북의 사람과 산업이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 우리의 성과를 보고서의 문장이 아니라 지역에 남은 사람과 일자리,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겠다.”



2027학년도 전주기전대학교

첫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전학기 전액 장학금

· 2027학년도 신입학한 자 중, 만 20세 이하인 자

(고교졸업예정자, 검정고시합격자[신입학 전년도 합격자]로 재학 중 성적우수자에게 전학기[입학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지원(성적기준: 학점학기 80/100[B학점]이상)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전국 전문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원1위

※2025 정보공시 기준, 기능대학 제외

신입생 기숙사 2인 1실 전액장학금지원

· 전액 장학금 지원

전체학과 AI 전환교육과정 운영

· AID 전환중점 전문대학 선정

수시 1차

2026.09.07.월 - 2026.09.30.수

수시 2차

2026.11.11.수 - 2026.11.25.수



입학홈페이지

5498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67

☎ : 063-280-5250 입학문의전화 ☎ : 063-231-6415 🌐 : www.kijeon.ac.kr

📺 📢 📷 전주기전대학 📱 jeonju_kijeon



기업·공공기관·지역과 함께 교육·연구 성과를 일자리로 잇는다

카카오 실무교육, ARRI 영화교육 등 공공기관 연계 공동학습 추진
제조·소재·바이오 분야 지역기업이 활용할 AI 기술 개발·실증 확대
5개 시·군 현안과 대학 인적 자원 연결하는 '이음DB'로 지역협력 강화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대학생이 한 팀에서 인공지능(AI)을 배우고, 영화 촬영 장비 기업의 실무교육이 전주에서 열렸다. 물류 분야에서는 기업과 연계한 교육이 누적 33명 이상의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졌다.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가 앵커(ANCHOR·엣 RISE)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변화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전북에 필요한 기술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과정이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전주대의 1차년도 성과는 기업 공동교육, 지역기업이 활용하는 AI 연구, 시·군별 현안에 대응하는 협력사업에서 나타났다. 기업·공공기관·주민의 경험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하고, 현장에서 얻은 결과를 다시 교육과 연구에 반영했다. 지역과 대학이 서로 배우고 보완하는 방식이 사업 전반을 관통한다.

기업이 교육에 참여하고 현장 경험이 채용으로 이어진다

AI 교육의 특징은 학생과 공공기관 직원이 함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전주대는 카카오펀터프라이즈와 협력해 45시간씩 3개 트랙의 실무 교육을 운영했다. 106명이 참여하고 43명이 수료했으며,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학생이 동등한 팀원으로 참여하는 공동학습을 통해 실제 업무의 필요와 학생의 학습 경험을 연결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에는 공공기관의 업무 맥락을 반영했다. 학생은 실무자와 협업하며 문제를 구체화하고, 교육 결과물은 성과 공유회를 거쳐 AI 교육 모델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영화 분야에서는 쿠퍼필름스튜디오와 영화 촬영 장비 기업 ARRI를 연계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전주의 영화·영상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글로벌 현장의 촬영 실무를 접하는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향후 시각특수효과(VFX)와 기획·마케팅까지 교육·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향도 제시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쿠팡 CFS·CLS 계약학과와 연계해 임직원 특강, 교과·비교과 교육, 인턴십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누적 정규직 취업은 33명 이상이다. 기업이 교육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며 학생에게 현장 경험과 직무 진입의 기회를 제공했다.

여러 과제에서 함께 쓰는 AI 기술을 만들다

연구 분야에서는 'AIPROOF AI융합 실증 연구클러스터'가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을 축적했다. 제조 현장의 이상탐지·품질예측 등에 활용하는 AI 공동 모듈과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문헌을 정리한 온톨로지·소형 언어 모델

(SLM) 지식베이스가 대표적이다. 원료와 기능성 등의 관계를 구조화해 전문 정보를 AI가 활용하도록 했다.

공동 모듈과 지식베이스는 여러 연구 과제에서 활용하도록 구축했다. 중복 개발 부담을 줄이고 지역기업의 필요에 맞춰 실증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보고서는 참여기업 실증 1건 완료와 제조·소재·바이오 분야로의 활용 확대 방향을 제시한다.

AIPROOF 개발 과제는 SCIE 논문 13건, KCI 논문 13건, 특허 출원 6건을 보고했다. 관련 학생 연구원 5명은 전북 지역 기관에 취업해 연구 경험을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했다.

외부 전문가의 지역산업 관련성·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를 연구 주제와 예산 조정에 반영하고, 임용 5년 이내 신진 교수의 참여도 확대했다. 연구 방향을 지역 수요에 맞추며 농식품·디지털바이오 후속 사업으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부안의 푸드서비스와

진안의 치유상품으로 이어진 대학의 역량

시·군 협력은 지역마다 다른 자원과 필요에서 출발했다. 부안에서는 농식품 S.M.A.R.T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협동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푸드서비스를 실증했다. 마실·노을·내소사 등 3개 축제에서 이용자의 반응을 확인했다. 관련 교육 수료생 46명, 제품 개발 18건, 특허 출원 2건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농식품에 교육과 현장 검증점을 결합했다.

진안에서는 주민 리빙랩 6팀을 운영하고 치유상품 3점의 상품화를 지원했다. 진안나물뽕, 디퓨저, 우드칩 틀발 등 주민의 아이디어가 상품화와 치유상품 설치·판매로 이어졌다. 주민이 생활 속 과제를 찾고 대학과 함께 해법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AI 쇼츠 공모전 수상작 9편은 지역 홍보에 활용됐다.

무주에서는 태권도를 공연·체험·상품으로 확장했다. 상설공연 '헌터스'의 누적 관람객은 1000명 이상이며, 태권도 굿즈 시제품 10종을 개발했다. 입실에서는 주민 12명을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휴먼북'으로 발굴하고, 치즈산업과 연계한 실감 콘텐츠 2건을 개발했다. 지역의 산업과 사람의 이야기를 관광 경험으로 연결하는 시도다.

식품과 로봇, 문화콘텐츠와 관광, 주민교육과 창업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결합하고, 축제와 마을에서 결과물을 검증했다. 현장의 반응은 다음 연도 과제를 개선하는 자료로 축적한다.

고교생과 재직자까지 넓히는

지역 인재의 성장 경로

전북베이크리키고와의 협력에서는 대학의 관



농식품 S.M.A.R.T 교육센터 개소식(왼쪽, 전북베이크리키고 협력 교육).



련 전공이 참여해 시그니처 메뉴 2종과 시제품 패키지 4종을 개발했다. PNB풍년제과 등 지역기업 5곳과 협약을 맺어 고교에서 익힌 기술을 대학의 전문성과 지역기업의 직무에 연결할 기반을 마련했다.

평생교육에서는 재직자 236명을 교육하고 디지털 배지 575건을 발급했다. 학습경험인

정제(RPL)를 통해 학점·학위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마련했다. 입실에는 J-커뮤니티 캠퍼스의 실습실과 강의실을 구축해 주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배울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다.

이러한 협력을 넓히기 위한 장치가 '이음DB'다. 부안·진안·무주·임실·군산 등 5개 시·

군의 현안과 인력 수요를 학생·유학생·성인학습자 등 대학의 인적 자원과 연결하도록 설계했다. 전주대는 이 경험을 전북 14개 시·군으로 확장할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연구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지영 기자 marigold@unn.net

INTERVIEW

한동욱 앵커사업단장

“지역과 대학은 들숨 날숨처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지역과 대학은 들숨과 날숨처럼 서로의 호흡을 완성하는 동반자다. 전주대 앵커사업단 슬로건에는 지역과 대학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 서로의 성장과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경험과 산업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들숨이라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과 나누는 과정은 날숨이다. 대학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변화시키기보다, 지역과 함께 과제를 찾고 서로의 강점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관계를 지향한다. 지역이 대학의 배움을 깊게 하고, 대학의 배움이 다시 지역의 일과 생활에 보탬이 되는 호흡인 셈이다.

우리는 주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교육과 연구의 동료로 참여하고, 학생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의 필요를 대학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만든 성과는 지역과 나누고자 한다. 이 호흡이 일상에 뿌리내려 지역과 대학이 함께 빛나도록, 전주대 앵커사업단이 늘 곁에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다.”



지역성장 산학연 협력 선도 모델로 ‘입학-취창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

115개 기업 채용약정 기반으로 산업체 맞춤형 직무교육·현장실습 연계 강화
AI·DX·미래모빌리티부터 통합돌봄·K-컬처까지 융복합 전문 인재양성
6개 특화 센터 중심 모빌리티 AI·DX 융합 실무 교육과 해외 연계 활동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모빌리티, AI·DX, 헬스케어, K-컬처 등 첨단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의 구체적 성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10여 년간 독보적인 산학·연협력 모델을 구축해 온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가 있다.

전주비전대는 2025년부터 가동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앵커사업 운영을 기점으로,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와 더욱 깊이 밀착된 거버넌스를 완성했다. 기존의 산학협력 인프라에 첨단 신산업 및 지역 특화 문화·평생교육을 결합함으로써 ‘입학·교육·취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인재양성 생태계를 전북 땅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앵커사업 대전환의 든든한 토대

전주비전대가 2025년 앵커사업의 주도적 거점 대학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현장 중심 교육과 ‘기업 밀착형 지원’의 축적에 있다.

전주비전대는 과거 산학협력 육성 사업들을 거치며 대학 전체의 체질을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진화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질 높은 취업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취업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우수 중견·강소기업 및 지역 앵커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며 높은 취업 만족도와 정주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주비전대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축 산업 및 전주시 신성장동력 분야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 맞춤형 직무 교육 모델을 지속 고도화했다. 115개 이상의 기업과 채용약정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업의 실제 생산·운영 공정을 교육과정에 이식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하는 선순환 구조를 다졌다.

대학의 연구·실습 장비와 전문 인적 자원을 산업체에 적극 개방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밀착 지원 체계를 가동해 왔다. 매년 380여 건에 달하는 기업 애로 기술지도 및 재직자 향상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기업으로 이전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앵커사업’ 핵심 단위과제별 다각적 성과

10여 년간 선도적으로 축적해 온 산학연협력 역량은 2025년부터 가동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의 9대 단위과제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다채로운 성과로 만개하고 있다.

첨단 미래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친환경 모빌리티(M), AI·DX(x), 콘텐츠(C) 기술을 융합한 인재 양성 과제로, AI·DX융합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DX융합기술 인재양성과정’과 타 대학 공동 AI 워크숍·성과 포럼을 주도하며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자율주행, 친환경 모빌리티, AI·DX 등 전북 주력 신산업에 맞춰 학과 교육과정을 최첨단 실무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면 개편·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지역사회 돌봄 통합 케어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지역사회 봉사를 결합한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가동해 취약계층의 헬스케어를 지원하고 맞춤형 실무경험을 쌓고 있다.

간호·사회복지·아동복지·유아교육 등 4개 학과가 연합해 노인, 장애인, 아동 대상의 전북형 통합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 정주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창업 생태계 및 해외 우수 인재 정착 체계

대학 내 창업 교육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 창업 캠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청년 기술 창업가 육성과 지·산·학 창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법무부 전문기술학과(K-CORE) 연계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지부터 체계

적인 전문 교육, 지역 기업 취업, 정주 비자 연계까지 일스톱 지원 체계를 정착시켰다.

평생직업교육·지역 교육 공동체 이음 활성화 지역 성인학습자의 재직자 직무 향상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말·야간 집중 이수제 및 학습경험인정제(RPL) 기반의 유연한 학사 체계를 가동하고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지역 재직자 및 주민 대상 맞춤형 단기 직무 연수와 자격증 과정을 확대해 평생교육 거점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도내 초·중·고교와 연계해 진로 체험, 신산업 기술 캠프, 대학 인프라 활용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북 주력·신산업 밀착 인재 양성

전주비전대 앵커사업단은 사업 총괄 거버넌스 아래 6개 특화 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북의 미래 자동차 및 AI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해 미래형 자동차 정비, 지능형 반도체, ICT 융합 실무 교육을 전담한다.

간호학부, 사회복지경영과, 아동복지상담과, 유아교육과 등이 참여하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개편해 노인·장애인·아동 대상의 고품질 라이프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외 선진 기술 프로그램 연계 연수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역 미래를 이끄는 고등직업교육 거점 추진

전주비전대는 앵커사업의 압도적 성과를 발판 삼아 지자체, 산업체, 타 대학과의 협력 고리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전북의 미래 산업 지형도에 맞춰 미래모빌리티, AI·DX,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농생명, 드론·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간 장벽을 허무는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

기존의 기업 기술 지원을 넘어, 전북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산업·사회적 현안을 대학과 교수, 학생,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해결하는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한다.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서 청년들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coolys@unn.net



DX융합 직무기술교육에서 학생들이 팀프로젝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INTERVIEW

우병훈 총장

“학생 꿈과 전북의 미래를 다지는 든든한 닻 될 것”

“전주비전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및 직업 교육을 넘어 청년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다.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단연 ‘바른 인성과 뛰어난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6대 핵심역량을 선정해 전공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는 인재들의 역량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 산업과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든든한 닻(Anchor)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교육의 진정한 경쟁력은 지난 10여 년간 다져온 930여 개 가족회사 및 지역 산업체와의 깊은 신뢰와 밀착 협력에 있다.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현장 실습 지도까지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직접 동참한다. 또한 지도교수가 직접 면접장에 동행해 학생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동행면접 시스템’, 취업 후에도 현장을 찾아가 적응을 살피는 ‘사후관리 방문 케어’, 그리고 정기적인 기업 방문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모범적인 시스템을 구

축해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

앵커사업의 본질은 결국 ‘학생 중심의 성공 경험’ 창출에 있다. 스마트 MxC 기술인재 양성, 스마트 헬스케어 및 휴먼라이프케어, JB스타트업 캠퍼스, 해외 우수인재 윈스톱 지원, J-HUMAN 성인학습자 교육, 초·중·고 이음 프로그램 등 9대 핵심 단위과제들은 학생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가동되고 있다. 아울러 하이플렉스 강의실과 코워킹 스페이스+, 유연한 학사 혁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첨단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 환경을 전국적인 수준으로 가꿔 나가고 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혁신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 전주비전대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인 ‘EXODUS2026+’를 추진하며,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도 지역에서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정주하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



VISION | 전주비전대학교

지성은 길을 비추고,
기술은 길을 만든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

50년을 걸어온 전주비전대학교



K-컬처·웰니스·평생교육 기반 ‘전북형 취·창업 앵커대학’ 도약

‘호원 2060 취·창업 TANKer ON’... 사업성과 학생 성장경로 중심으로 전환
K-콘텐츠 IP 확보·웰스케이 리빙랩으로 문화·보건 역량 지역산업과 연결
‘생애캠퍼스’ 구축해 성인학습·재취업·창업 지원... 지역 정주 기반까지 확대

대학은 이제 캠퍼스 안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학생이 지역 현장에서 역량을 키우고, 취업과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며 다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대학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지역과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K-컬처·웰니스·평생교육이 있다.

1차년도가 ‘전북 앵커 체계와 동행하는 호원성취 POWER UP+ 혁신플랫폼’을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과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한 단계였다면, 2차년도에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해 ‘호원 2060 취·창업 TANKer ON’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역정주를 연결하는 전북형 앵커대학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교육·문화예술·보건·평생교육 역량 지역 현장으로 확장

1차년도 호원대는 ‘전북 K-컬처·웰니스·평생교육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전북 앵커(구 RISE) 체계와 연결하는 ‘호원성취 POWER UP+’ 혁신플랫폼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문화예술·보건·평생교육 역량은 지역 현장으로 확장됐다. K-컬처는 지역의 문화와 축제, 웰니스는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과 현장문제,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와 지역주민의 학습 수요로 연결됐다.

2차년도에는 이러한 경험을 보다 체계적인 전략으로 발전시킨다. 호원대는 대학 특성화 분야와 앵커 추진방향을 결합한 ‘호원 2060 TANKer ON 특성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Talent(지역인재육성), Action(지역현장강화), Network(지역기업연계), K-culture(브랜드화)를 중심으로 대학의 역량을 지역산업과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K-컬처, 전공을 지역 콘텐츠와 산업으로

호원대 앵커사업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

는 K-컬처를 학생 교육과 지역문화의 접점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1차년도에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청년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축제 테마음악 제작 및 활용 관련 비학위과정을 운영했다. K-컬처 퍼포먼스 분야에서는 디지털 싱글 음원 2곡을 포함해 총 12곡을 발매했으며, 군산의 영화촬영지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머시브 공연 콘텐츠 개발, 공연미디어 학생들의 지역축제 참여, 세계 민속의상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패션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특히 군산시와 호원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16억 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2025년 군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에는 36만 명이 방문했다. 군산 지역 축제와 연계한 외지 방문객 역시 2024년 3만 4354명에서 2025년 8만 6071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업의 의미는 학생이 전공에서 배운 음악·공연·패션 등의 역량을 실제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에 접목하고, 그 결과물이 지역축제와 문화현장에서 활용된다는 데 있다. 강의실에서 배운 전공이 지역 콘텐츠가 되고, 지역 현장이 다시 학생의 교육과 경험이 되는 구조다.

2차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축제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 IP와 취·창업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대표사업인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청년역량강화 프로젝트, 청년아이디어 재미잇(이) 군산’은 호원대와 군장대, 울산과학대를 연결하는 초광역 K-컬처 협력 벨트를 기반으로 공동 콘텐츠와 IP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축제 테마음악 ‘군산산’, 관광객과 상호작용하는 이머시브 공연, 시민참여형 G-페션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G-FOOD 등 음악·공연·패션·식문화가 지역축제와 결합할 예정이다.

나아가 호원대는 제작된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을 기반으로 수익모델과 실무 매칭을 마련해 IP 확보→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향해 K-컬처를 단순한 공연이나 교육 콘텐츠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자산을 새로운 콘텐츠와 산업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호원대 전경.

확장시킬 방침이다.

웰니스와 평생교육, 지역의 삶까지 연결되는 대학 혁신

호원대의 지역혁신은 문화예술에만 머물지 않는다. K-컬처가 대학의 강점을 지역 문화산업과 연결하는 축이라면, 웰니스는 보건·웰스케어 역량을 지역산업과 생활 현장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차년도에는 JB산업체 근로자의 Healthcare 융합인재 양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ealth Up! 리빙랩, 산업체 협력을 위한 정주취업 산학 미니클러스터 등을 추진했다. 학생이 실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대학의 교육역량을 활용해 산업체의 현장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학생의 현장역량을 다시 지역기업의 인재 수요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웰니스 분야에서는 교육→현장→산업협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평생교육 역시 호원대 지역혁신의 중요한 축이다. 호원대는 지역대학의 역할이 청년학생 중심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성인학습자의 학습과 재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을 특정 연령의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이 생애 전반에 걸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생애캠퍼스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K-컬처·웰니스·평생교육의 3대 특성화 분야는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 현장과 연계해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한다.

‘호원 2060 TANKer ON’, 지역인재 성장의 엔진

2차년도의 가장 큰 변화는 개별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하나의 전략체계로 묶고, 이를 취·창업과 지역정주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본격화하는 데 있다. 호원대는 이를 ‘호원 2060 취·창업 TANKer ON’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원 2060 취·창업 TANKer ON’은 Talent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Action을 통해 지역 현장을 강화하며, Network를 통해 지역기업과 대학을 연결한다. 여기에 K-culture를 통해 지역동행과 글로벌 미래인재라는 대학 브랜드를 강화한다.

이는 대학의 사업 성과를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건수에서 학생의 성장경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가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경험했고, 어떤 기업과 연결됐으며, 어떠한 콘텐츠와 기술을 만들었는지, 나아가 취업·창업과 지역정주까지 이어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원대는 2차년도에 정주취업지

수, 창업활성화지수, 산학취업연계지수, 현장역량형성지수, 성과확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앵커사업단

호원대 앵커사업은 개별 사업의 성과를 대학 전체의 역량으로 확장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1차년도에는 K-컬처, 산업보건헬스, 로컬조리, 유아돌봄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했다. 분야와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대학의 교육역량을 지역 현장에 투입하고, 학생이 현장에서 배우며, 그 경험을 다시 지역산업과 취·창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2차년도 종합사업계획에서 제시한 ‘K-컬처 기반 전북형 취·창업 앵커대학으로의 도약’도 이러한 방향을 보여준다. 호원대는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전북의 특화산업과 연계하고 K-컬처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교육과 현장,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원대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K-컬처 특성화 대학’에 머무르지 않는다. K-컬처를 기반으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지역 현장과 연결하며,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콘텐츠와 산업으로 확장해 다시 취업·창업과 지역정주로 이어가는 대학이다.

임지연 기자 lly12@unn.net



① 2026년 K-컬처&아트테크 창업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② 로컬 IP 기반 지역문화 브랜드 및 창업생태계 구축 컨퍼런스 현장. ③ K-컬처 크리에이터 성과공유 토크콘서트.

INTERVIEW 서충길 앵커사업단장

“학생 성장을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할 것”

호원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지역과 대학을 연결하는 앵커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1차년도에는 ‘호원성취 POWER UP+’를 바탕으로 K-컬처·웰니스·평생교육 분야의 대학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학생들이 지역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2차년도에는 ‘호원 2060 취·창업 TANKer ON’을 중심으로 이러한 성과를 취업과 창업, 지역정주까지 이어지는 성장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호원대는 앞으로도 지역의 필요를 교육에 담고, 교육의 성과를 다시 지역에 돌려줄 계획이다. 사람을 키우고, 현장과 연결하며, 학생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취·창업 앵커대학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

가대, 생명을 향해 가다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Go and do likewise (Lk 10, 37)

순천향대 AI 중심대학 이어 AX대학원 선정

전주기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AI 인재양성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전주기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지난 5월 'AI 중심대학'에 비수도권 지역대학으로 유일하게 1차 선정된 데 이어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AX대학원'에도 선정됐다.

AI 중심대학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240억 원을 포함해 총 278억 원이 투입된다. 순천향대는 SW융합대학을 AI대학으로 전환하고 AI의료융합혁신교육



송병국 순천향대 총장(오른쪽)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원을 신설해 전교생 AI 기초교육과 AI·AX 융합교육과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순천향대는 AX대학원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AI의료융합과 연계해 교육, 연구, 임상 실증, 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문대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 은상·동상

AI스마트농업·반려견안전제안

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HUSS 위협사회사업단 소속 학생 2개 팀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2026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에서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에는 18개국 436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해 1100여 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은상을 받은 '그린허브' 팀은 소형 환경 센서와 AI 분석기술을 활용해 초보 농업인의 작물 관리를 돕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개발했다. 동상을 수상한 '햇가드 워크' 팀은 AI 기반 반려견 산책 안전 지원 서비스를



신문대 HUSS 위협사회사업단이 2026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에 참가해 은상·동상을 수상했다.

제안했다. 수상작은 경중수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6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사업단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한서대 몽골서 항공협력 포럼 개최

기술교류·산업협력 등 확대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몽골에서 '2026 한국-몽골 항공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서대 글로벌대학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 몽골 간 항공 분야 협력을 항공 전문인재 양성, 항공 교육, 공동연구, 기술교류 및 산업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몽골 교통부와 항공청, 항공사, 대학, 관련 기업 등 몽골 항공·교육·산업 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국 항공 교류를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포럼 주요 참석자들.

학생 교류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몽골 정부기관, 항공기관, 대학 및 기업과 협력을 구체화해 한·몽 K-항공협력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성 글로벌대학사업단장은 “한·몽 항공협력을 교육과 인재, 기술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협력체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EBS와 AI 교육 콘텐츠 개발 협약

AI 교육 생태계 구축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천대 AI 중심대학사업단의 AI·컴퓨팅 교육·연구 역량과 EBS의 교육 콘텐츠 제작·미디어 인프라를 연계해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AI·SW 기반 미래교육 플랫폼과 에듀테크 기술 개발·활용, AI·SW 및 미래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EBS 미래교육 서비스와 AI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자문·기술 교류 등에 협력한다.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천대 학생 멘토 참여와 현장실습 지원, 전 국



AI 교육 콘텐츠 개발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민 대상 AI 리터러시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차세대 AI·AX 기술 공동연구 개발과 산학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길여 총장은 “양 기관의 연구역량과 노하우가 결합하면 국가 AI 인재 양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대 산학협력 우수사례 교육부장관상

식물 유래 엑소좀 공동연구

인천대학교(총장 이인재) 산학협력단이 지난달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학협력 EXPO' 개막식에서 '2026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술협력 분야 장려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이원종 생명공학전공 교수 연구팀과 대봉엘에스가 추진한 식물 유래 엑소좀 공동연구 성과다.

양 기관은 2025년 연구용역을 시작한 뒤 기술 컨설팅과 생산공정 표준화 등을 추진하며 대학 원천기술을 기업 생산현장에 적용해 왔다. 연구팀은 저체 유래 엑소좀 기술



'2026 산학협력 EXPO'에서 인천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들.

을 활용해 대량생산과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식물 유래 엑소좀 원료 2종 추가 개발과 국내 특허 및 PCT 국제출원 성과를 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대학 연구성과와 기업의 생산·사업화 역량을 결합한 현장 중심 산학협력 모델로 평가했다.

청운대 장춘대와 AI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AI 기술 발전·미래 변화 논의

청운대학교(총장 정윤)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장춘대학교와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학술·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AI 기술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양국의 AI 기술 현황과 미래 대학·산업 변화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박정훈 청운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무선 데이터 통신에서 빔 추적을 위한 빔포밍 배열의 발전을 발표하고, AI 기반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의 가



AI 국제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

능성을 제시했다.

청운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장춘대와 AI·첨단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춘대 방문단은 경북공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서대 일자리 창출 대통령표창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공로

동서대학교(총장 장재국)는 정동운 진로취업지원처장이 '2026년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동서대는 학생성공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학습병행공통훈련센터 등을 연계해 전주기 진로·취업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의 진로 목표와 준비 수준에 따라 상담, 취업 컨설팅, 현장자 멘토링, 기업 설명회,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을 제공해



진로취업지원처 직원들.

왔다.

동서대는 부산북부지청과 지역기업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정주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동운 처장은 “이번 수상은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 부산북부지청 및 지역기업의 협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개교 110주년 기념 마라톤 개최

5.16·10.17km 상징 코스 운영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는 지난달 15일 개교 110주년 기념 마라톤 축제 '달라'와 한강 일대 환경 정화 활동 '쓰담 달리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이 공동 주관했으며, 교직원과 재학생, 동문 등 9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개교 연도 1916년을 상징하는 5.16km 코스와 개교기념일인 10월 17일을 의미하는 10.17km 코스로 운영됐다. 현장에는 대학 공식 마스코트 '푸앙이'를 활용한 팝업스토어와 참여형 부스가 마련됐고, 완주자에게는 푸앙이 캐릭터 기념 메달이 수여됐다.



중앙대 개교 110주년 기념 마라톤 개막식 현장.

폐회 후에는 조깅과 환경 정화를 결합한 '쓰담 달리기'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강철교에서 동작대교에 이르는 수변 일대 폐기물을 수거하며 ESG 실천에 동참했다.

특히 박세현 총장이 직접 수거 집계를 들고 참여자들과 발을 맞추며 ESG 실천 의지를 몸소 보여줬다.

승실대 창업동아리, 연합워크숍 우수상

차별성·사업화 가능성 인정

승실대학교(총장 이운재)는 학생 창업동아리 '두루'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26 수도권 대학 창업동아리 연합 워크숍'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대 창업지원단이 주관했으며, 수도권 대학 창업동아리의 교류와 우수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14개 대학 27개 창업동아리가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창업 특강, 토크콘서트, 전문가 멘토링, 특히 박세현 총장이 직접 수거 집계를 들고 참여자들과 발을 맞추며 ESG 실천 의지를 몸소 보여줬다.

두루 팀은 디자인권 관련 업무에



승실대 학생 창업동아리 '두루(DURU)'의 김영민·신동국 학생(왼쪽부터).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창업 아이템으로 발표했으며 아이템의 차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발표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다.

승실대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 모두의 창업 2기 323건 접수

10월 중 1라운드 진출자 선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산학협력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2기' 사업의 충남권 멘토기관으로 참여해 창업 아이디어 323건을 접수하고, 10월부터 보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충남권에서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허브 기관을 맡고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등이 전문 멘토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은 기



한국기술교육대 전경.

업인, 벤처캐피털 투자심사역, 변리사, 공학 기술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책임멘토단을 구성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은 10월 중 1라운드 진출자를 선발하고, 선정팀에는 1대 1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덕성여대 2026 홈커밍데이 개최

선후배 1:1 연결 '짝선짝후' 운영

덕성여자대학교(총장 민재홍)는 지난달 19일 쌍문캠퍼스에서 동문과 재학생 등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덕성 홈커밍데이에 '다시 우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후배가 서로의 시간과 이야기를 나누며 덕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동문과 재학생을 1대 1로 연결한 '짝선짝후'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재학생들은 동문의 안내자이자 파트너로 캠퍼스 투어, 전시 관람, 저녁 식사 등을 함께했다. 또 '2026 덕성 ON·AIR! 유튜브 콘테스트' 시상식과 수상자 상영, 민주동산



2026 덕성 홈커밍데이.

기념촬영, 덕우당 한복파티 등이 진행됐다.

민재홍 총장은 “선배가 걸어온 길은 후배에게 길이 되고 후배가 만들 어갈 미래는 선배에게 자량이 된다”며 “오늘의 만남이 덕성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양대 추석 맞아 산불 피해지역 주민 소통

지역 현안 연계 교육·봉사 확대

동양대학교(총장 최재욱)는 경북앵커사업단이 간호학과 학생회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경로당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명절의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와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북앵커사업단과 간호학과 학생회는 산불과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추석의 추석 인사와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양대 경북앵커사업단과 간호학과 학생회 관계자들이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경로당을 찾았다.

동양대 경북앵커사업단은 지역 현안과 연계한 교육, 봉사, 지역협력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상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정에 부단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먼저 써먹고, AI와 탐구하고, 자기 언어로 완성하라

정제영 칼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화여대 교수)

AX 시대, 대학교육의 길을 묻다 ⑦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학에서 학생의 학습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의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대학가의 대답은 자주 도구의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나 좋은 도구가 곧 좋은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행 연구들은 AI의 활용만으로는 학습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범용 생성형 AI를 활용한 집단은 연습 과정에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AI 접

근을 차단한 채 치른 평가에서는 AI를 전혀 쓰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목발 효과(Crutch Effect)'라 부른다. 목발은 당장의 이동을 돕지만 오래 의존하면 스스로 걷는 힘을 잃어 간다. 관건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학습 과정 어디에 놓느냐, 곧 '수업 설계'의 문제이다.

대체가 아니라 증강, 인지적 증폭기로서의 AI

AI가 답을 대신 내주면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미국 5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에세이를 쓰게 한 뒤 한 시간 안에 자신이 쓴 내용을 재현하도록 했다. 스스로 작성한 집단의 재현율은 89%였던 반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집단은 12%에 그쳤다. 뇌파(EEG) 분석에서도 AI 활용 집단은 도구 없이 작성한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약한 신경 연결성을 보였다.

주목할 대목은 같은 연구의 후속 발견이다. AI를 먼저 쓰고 이후 혼자 작성한 집단은 낮은 활성화와 낮은 기억 유지율을 보인 반면, 혼자 먼저 쓰고 그다음 AI를 보조로 쓴 집단은 둘 다 높게 유지했다. 동일한 도구, 동일한 시간,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다. 차이를 만든 것은 성능이 아니라 학습의 순서였다.

여기서 새로운 수업 설계의 대전제가 도출된다. '인지 활성화 우선'의 원칙이다. 곧 학습자의 사고를 먼저 작동시킨 뒤에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폭기는 입력 신호가 있어야 증폭한다. 학습자의 사고라는 신호가 먼저 발생해야 AI는 비로소 그 사유를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인지적 증폭기'로 기능한다.

BWA-AI 교수법 : 먼저 써먹고, 그다음 AI 활용

BWA-AI 교수법은 AI를 활용하는 수업을 Before-With-After AI의 3단계 순서로 설계하자는 원칙이다.

첫째, Before AI(선행적 어려움)이다. 학습자는 새로운 개념이나 난제 앞에서 AI의 도움 없이 먼저 스스로 써먹어야 한다. 이 단계의 오류와 막힘은 교정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관련 스키마를 활성화해 인지적 준비도를 확보하는 필수 과정이다. 학자들이 말하는 '생신적 실패'가 여기서 작동한다. 교수의 개입 지점은 분명하다. 일정한 독립 탐색 시간을 과제 설계에 설정하고, 정답이 아니라 시도와 가설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With AI(협력적 탐구)이다. 자신의 초기 가설과 미진한 이해를 들고 AI와 변증

법적으로 대화하는 국면이다. 이때 AI는 정답 인출기가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를 비추고 확장하는 '인지적 거울'이다. 학생은 자기 논리를 AI에게 설명해 타당성을 점검받고, 동시에 AI의 응답에 숨은 허점을 되짚는다. 교수는 학생들의 사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질문의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After AI(비판적 종합)이다. AI와의 협력적 탐구가 끝난 직후, 다시 외부의 도움 없이 학습 내용을 자기 언어로 재구조화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는 확인 과정이다. 이 단계를 생각하면 학습자는 타인의 설명을 자기 지적 소유물로 오인하는 '유창성 착각'에 빠진다. 교수는 체화된 역량을 평가하는 산출물로서 구술 설명, 무(無)AI 재작성, 성찰 기록을 학습의 마지막 순서로 설계해야 한다.

순서가 역전되면 결과도 역전된다. 첫 단계를 건너뛰면 목발 효과가,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면 유창성 착각이 기다린다. 이 세 단계는 학습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수업 설계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교육 디자이너로서의 교수

전통적 수업 설계 모델은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최적화하는 틀이었다. 내용의 전달을 AI가 더 빠르

고 값싸게 해내는 시대에 이 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교수에게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능력을 넘어 학습 경험의 구조를 짜는 '교육 디자이너'의 역량이 요구된다.

가장 구체적인 과업은 과제마다 'AI 활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다. 개념을 처음 익히는 과제는 AI 사용을 차단하고, 자료 탐색과 아이디어 확장 과제는 적극 권장하며, 최종 논증 과제는 사용 이력과 판단 근거를 함께 제출하게 하는 식의 차별적 설계가 필요하다. 학습 목표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에 따라 AI의 투입 시점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부정 행위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목표 설정의 문제이다.

결국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수업의 짚을 가르는 변수는 어느 대학이 더 좋은 AI를 도입했는가 아니다. 같은 모델을 쓰더라도 그것을 학습 과정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관건은 AI의 성능이 아니라 그것을 수업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교수의 수업 설계 역량이다. 이 역량은 개인의 선의나 열정에 맡겨 둘 수 없다. 강의 계획서에 AI 활용 설계를 기재하는 표준 양식, 교수학습센터(CIL)의 실질적 지원, 그리고 이러한 설계 노력을 인정하는 교원 업적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부실한 교육 밥상에 유학생만 더 얹힐 것인가

특별기고

신중범

중앙대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박사(기획팀장)



"내 자식도 끼니를 거르는데 남의 자식 데려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인다."

고등교육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대학의 기형적 현실을 꼬집는 뼈아픈 자화상이다. 조처출산의 거대한 충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프라는 갈수록 메말라가는데 대학과 정부는 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찾고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 따라 이듬해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일정 기준만 갖추면 설립을 허용해 사립대의 양적 팽창을 촉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 만에 닥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고등교

육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었다. 학위 시장의 수요는 곤두박질쳤고 대학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 '뱃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던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우려가 벌써 수도권 턱 밑까지 현실화됐다. 2000년 이후 22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대학 위기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무분별한 팽창의 문을 열어젖힌 것은 정부였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안하 기조도 대학 재정에 부담을 누적시킨 원인이다. 결국 사립대는 공공재로서의 무거운 책무만 강요 받은 채 생존 비용은 각자도생으로 메워야 하는 모순에 빠졌고 '생존형 학위 상품'을 파는 처지로 내몰렸다.

재정 절벽에 직면한 대학들이 찾아낸 교육 지책은 '국제화'지만,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중소 사립대에서 유학생은 재정 확보의 주요 수단이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소멸과 산업현장 인력난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상아탑이 체류·취업 목적의 모집에 치우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스터디코리아 300K' 드라이브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컬처 열풍에 유학생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미얀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기 위해 밥새 줄을 서고 세종학당과 한국교육원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경은 세종대왕도 놀랄 문화적 쾌거다.

문제는 이 기회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다. '국제화=영어 수업' 도식에서 벗어나 질 높은 한국어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지만 국내 대학들은 정부의 까다로운 외국인 입학 규제와 범람을 피하고자 알다시피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부를 신설하는 춘곡을 밟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을 기대한 학생들에게 어설픈 영어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위를 주는 기막힌 모순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더 뼈아픈 것은 대학의 본연의 경쟁력이다. 기초학문 생태계는 붕괴하고 착박한 연구 풍토에서, 치열한 입시를 뚫고 입학한 내국인 학생들은 고등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내 자식도 외면하는 부실한 밥상을 차려놓고 외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국인 학생을 끌어모아 연명하겠다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일과 북유럽 등 고등교육 선진국들은 결코 단기적인 '머릿수 장사'로 위기를 돌파하지 않았다. 정부의 개입 대신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탄탄한 공공 재정을 바탕으로 학문의 성숙도와 산업적 연계를 긴 호흡으로 축적해 왔다. 자국 학생이 먼저 자부심을 느끼는 견고한 교육 생태계를 닦아놓았기에 세계

의 인재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선순환이 가능했다.

근본적인 '규제 혁파'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립대를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등록금과 정원 책정, 재정 운용의 실질적 자율권을 돌려주고 사후 책임성을 묻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 또한 과거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의 패러다임과 산업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데도 낡은 전공과 커리큘럼을 방치한 채 빈자리만 유학생 등록금으로 메우려는 방식으로는 절대 미래를 열 수 없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콘텐츠를 증명해 내야 한다.

대학의 국제화는 교육 자체가 지닌 본연의 매력, 즉 고등교육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창출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 자식에게 당당하게 먹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놓을 때 비로소 세계의 인재들도 그 밥상을 찾아오며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것이다.

M 매일경제

AI시대 富 늘리는 파트너 매일경제

생성형 AI가 가장 신뢰한 대한민국 NO.1 미디어, 매일경제 AI시대, 당신의 자산을 키우는 솔루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생성형 AI 검색 인용 1위, 매일경제 AI도 인정한 신뢰도 높은 언론사 (한국언론재단, 2025년)

지구촌 최대 지식축제, 세계지식포럼 세계의 균형발전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지식경제의 장

정확하고 빠른 해답 풀이, AI허브 60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로 경제고민을 풀어드리는 지식경제 솔루션

부의 집단지, 매경클러스 효과적 투자 길로 안내하는 프리미엄 재테크 플랫폼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컬럼, 머니쇼 자산관리 전문가의 트렌드와 금융전문가들의 실전투자 노하우를 생성형 AI로 전달

나만의 AI 금융 비서, MAI 에이전트 당신의 투자상황과 관심분야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추천하는 맞춤형 금융비서



쉽게 얻은 지식, 내 것이라는 착각! 진짜 무엇을 배웠을까?

시론

정영란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장
(서울디지털대 교수)



요즘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보면, 문장은 매끄럽고 논리도 정연한데 영혼 없는 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습자 나름 ‘효율적으로 작업한’ 글이지만, AI가 다 해 준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요즘 대학 수업에서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2025년 영국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90%의 학생이 시험이나 과제 평가에 생성형 AI를 써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질문 한 줄이면 몇 초 만에 정리된 설명과 완성된 문단이 돌아온다. 문제는 이러한 쉬움이 학습자의 인지적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이다. 2025년 MIT 미디어랩 연구진이 5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에세이 작성 방법에 따른 뇌파를 분석한 결과, LLM을 사용한 집단은 검색엔진이나 도구 없이 작성한 집단보다 뇌 연결성이 가장 약했고, 자신이 제출한 글을 정확히 인용

하는 데에도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당장의 효율을 얻는 대신 깊이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조금씩 빌려 쓰고 있다는 의미에서, LLM의 사용이 학습자의 ‘인지적 부채(cognitive debt)’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현상이 직무 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5년 카네기멜런대와 MS 연구소 연구팀이 지식노동자 319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를 덜 사용하고, 반대로 자기효능감(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업무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두는 기업일수록, AI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아마도 AI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비판적 검토나 검증은 미루는 일이 만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AI를 멀리하면 해결될까? 앞선 MIT 연구에서 먼저 스스로 글을 쓰고 나중에 AI를 활용한 학습자들은 오히려 기억과 뇌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문제는 도구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도구에 맡기는지, 그 순서와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교육자에게 남는 질문은 “AI가 언제든 답을 내어 주는 시대에, 학습자가 반드시 자기 안에 지녀야 할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능력을 갖게 할 것인가?”이다.

쉽게 얻은 지식이라도 그 위에 내 생각을 얹

는 능력, 타인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상황에서도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AI의 그럴듯한 답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왜 알고 싶은지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이러한 것들은 ‘인지적 부채’ 없이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도 도전하는 교육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이제는 학습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를 학습자와 함께 논의하고 설득하며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자가 학습 목표와 가치에 스스로 동의할 때, 비로소 그 목표는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된다. 자기결정 이론이 말해 주듯,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목표를 향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만족하게 된다. 학습의 주도권은 선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합의에서 자리난다.

AI는 우리에게 답을 준다. 그러나 무엇을 알고 싶은지, 왜 알아야 하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그 물음을 학생들과 함께 붙드는 일, 그것이 AI 시대 대학이 포기해서는 안 될 교육의 본령이다. 강의실에서 우리가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은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이다.

유연한 대학, 증명하는 대학

대학통

조남민

한국기술교육대
대외협력실장 겸
글로벌 인재학부장



요즘 학생들은 한 학기에 두 개의 대학을 다닌다. 하나는 시간표에 적힌 대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새벽에 노트북을 열고 접속하는 온라인 강좌다. 강의실에서 채우지 못한 배움을 화면 너머에서 스스로 찾아 나서는 셈이다.

변화의 속도는 이미 대학의 학사 일정을 앞지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22%가 구조적 변화를 겪고, 핵심 직무 기술의 39%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습자의 움직임도 빠르다. 2025년 코세라(Coursera)의 생성형 AI 과정 등록은 전년보다 195% 늘어 누적 800만 건을 넘어섰다. 교육시장 전망에서도 중등 후 교육의 연평균 성장률은 4.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직자 향상훈련과 직무전환 교육은 6.5%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지만, 그 배움의 상당 부분은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배움이 대학 밖으로 옮겨 가는 이 흐름 앞에서, 대학이 고민해야 할 화두는 ‘유연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이란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단위와 시기, 장소, 인증 방식을 학습자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먼저 학습경로와 단위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 플랫폼은 짧은 강좌를 학위로 연계하는 경로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에드엑스(edX)는 개별 강좌에서 시작해 프로페셔널 서티피케이트(Professional Certificate)와 마이크로마스터스(MicroMasters)를 거쳐 일부 대학의 석사과정까지 이어지는 길을 열어 두었다. 학습자는 지금 필요한 강좌부터 시작해 성과를 하나씩 쌓아가며 학위에 도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증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어플라이드 스킬스(Microsoft Applied Skills)는 학습자가 실제 업무 환경과 연결된 가상미션에서 30~45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상을 인증한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다만 에듀테크가 모든 답을 주는 것은 아니

다.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교육은 크게 늘었지만, 2024년 글로벌 에듀테크 벤처투자는 약 24억 달러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콘텐츠의 양이나 기술의 새로움이 아닌 실제 학습성과를 묻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세라 역시 누적 등록 학습자 1억 9730만 명이라는 수치가 실제 학습 참여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온라인 교육이 지속 가능하려면 콘텐츠와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향상과 현장 실습, 수행 평가, 자격과 고용으로의 연계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대학 교육에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진다. 먼저 온라인 교과의 평가를 진도율과 출석 중심에서 과제 수행과 결과물 중심으로 점차 옮겨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과 프로젝트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혼합형 설계를 전공 특성에 맞게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의 유연함이 곧 느슨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어 준 만큼, 그 배움이 실제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살피는 노력이 더해질 때 대학 교육의 유연성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사설

지역혁신의 허브라면서 대학 홀대해서야

세상이 변하니 의견도 변하는 모양이다. 대학지원 사무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면서 대학총장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돈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니 의견의 중심축도 당달아 옮겨간 것일까. 대학가에서는 총장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어느새 ‘갑’과 ‘을’로 바뀌었다는 씁쓸한 농담까지 나온다.

의견은 단순히 누가 앞자리에 앉고 먼저 소개되는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누구를 먼저 부르고 어디에 앉히느냐에 그 대표를 하는 기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담겨 있다. 의견은 권력의 서열표라기보다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대학 총장에게는 오랫동안 상당한 예우가 주어져 왔다. 총장이 잘나서가 아니다. 교육과 학문, 대학이라는 기관의 공적 가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대학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영 만만치 않다. 지역 행사에 초청받은 총장이 단상에도 오르지 못하거나 구석 자리를 배정받는 일이 심심찮다고 한다. 그래서 “총장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다소 과장이 섞였을 수 있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뒷맛이 씁쓸하다. 좌석 한 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더 격정스러운 것은 대학지원체계가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RISE에 이어 ANCHOR 체계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정부는 대학지원의 핵심 주체가 됐다. 지방의회 역시 관련 예산과 조례, 지역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주체다. 돈과 사업의 결정권이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대학교와 지방 권력기관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총장들이 교육부 문턱을 드나들었다면 이제는 도청과 시청, 군청은 물론 지방의회의와 소통도 중요해졌다. 지역과 손잡지 않고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담당 처장이 뛰고 산학협력단장이 뛰고, 필요하면 총장도 직접 뛰어야 한다.

문제는 가까워지는 방식이다. 협력하라고 만든 제도가 ‘돈 주는 쪽’과 ‘돈 받는

쪽’의 관계로 굳어져서는 곤란하다. 총장마저 담당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의견 논의는 오히려 사치가 된다. 예산과 사업에 영향력을 갖는다고 대학의 상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지방정부의 산하기관도, 지방의회의 하부기관도 아니다.

더구나 정부는 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라고 강조한다.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연구개발과 창업을 이끌며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역할까지 대학에 맡기고 있다. 지방소멸 시대에는 대학 하나의 존립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기도 한다.

그런 대학을 지역 행사에서는 변변한 자리 하나 찾기 어려운 기관으로 취급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말로는 ‘혁신의 허브’, 현실에서는 ‘지원사업 수혜기관’이라면 대학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릴 만하다.

총장을 예우하자는 것은 총장 개인을 떠받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용 의자를 놓아 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총장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표한다. 지방소멸 시대에는 대학 하나의 존립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기도 한다. 총장을 대하는 태도에는 결국 대학을 대하는 태도가 묻어난다.

그렇다고 ‘군사부일체’를 다시 꺼내 들자는 것도 아니다.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 학문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위까지 없에서는 곤란하다. 대학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역혁신의 선봉에 서라고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한번쯤 의견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행사의 성격과 대학의 역할에 걸맞게 대우하면 된다. 특히 교육·산업·지역혁신·인재양성 행사라면 대학 총장은 구경하러 온 손님이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할 파트너다.

말로만 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라고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을 지역혁신의 파트너로 세우려면 그에 걸맞게 대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University News Network www.unn.net

대표이사·발행인 **홍준** 주필·편집인 **최용섭** 편집국장 **최정근** 인쇄인 **김희준**

(우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2차 14층 (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8)
대표전화 02-2223-5000 | 편집국 02-2223-5030 / F 02-2223-5004 | 광고국·구독신청 02-2223-5050

구독료: 연 90,000원 | 한국신문신문협회 회원사 | 저작권(C)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88년 10월 15일 창간 (주간) 등록번호 서울 다 -05879 (1988. 8. 31)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가천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교육과정**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학사학위)

심리학
(심리학사학위)

보육교사2급(아동학)

종합미용면허(미용학)

4년제 학위취득

**신청대상**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누구나 신청가능



가천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 상담센터 031-750-1546
eglobal.gachon.ac.kr



우리, 국립금오공대에서 도전하자

당신의 꿈으로 가는 길엔 국립금오공대가 있습니다.

재료공학부 | 구서연 학생

- 경북지역 대학 최초 슈퍼컴퓨터 제1호기 가동
-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 대학 ICT 연구센터 전국 최대(3개 센터) 선정
- 슈퍼컴퓨팅센터 NVIDIA 공동 연구실 구축